

최근 출판활동 비해 판매 부진

출판부, 기획력강화·홍보 등 다양한 전략 필요

출판부(출판부장 문성숙 국어교육과 교수)가 최근 활발한 도서출간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동시에 판매면에서의 활성화와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부는 지난 1학기에 출간한 간행도서 대부분을 발행부수의 절반도 판매하지 못했다. 문성숙 교수는 "현재 경제위기 여파로 전국적으로 출판부가 불황을 겪고 있는데, 우리 대학 출판부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본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4~5년 동안 총 1백여권의 책을 출판한 후부터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돼 독자적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출판부 도서의 판매 부진에는 현재의 출판시장 탓도 있으나 도서의 품질과 판매 부분에서 드러나는 미숙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인문대 김보현 교수는 "우리 대학 출판부의 서적은 대개 교양·전공 교재로 사용되는데, 전체적인 편집과 표지 디자인 등에서 눈에 띄지 않아 그 내용까지 부실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판부에서 발간된 책을 살펴보면 스티커를 오래붙여 오자를 고친 부분

이 있는가 하면, 참고표나 한자의 글씨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거나 책의 맨 뒷쪽 한쪽에 장 구분이 되지 않아 독자들이 목차만 보고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편집상의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출판부에서 출간한 책들은 먼저 저자가 가편집한 초고를 받아 전체적인 표지디자인 및 교정 등을 본 후, 대행업체에서의 최종 편집과 인쇄공정을 거치고 있다.

출판부가 이렇게 해서 최근 두 차례 출간한 도서는 2권이 도내에서, 13권은 서울지역에서 인쇄됐다. 문성숙 교수는 "그동안 도내 출판사에 바코드가 없어 인쇄를 서울 등지의 인쇄업체에 맡겼으나, 금년 봄 우리대학 교육 바코드가 확보돼 돈이 좀 들더라도 도내 인쇄업체에 맡겨 지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부가 출판활동에 걸맞게 판매력 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기획력 강화는 물론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출판부 홍보 등 다양한 판매전략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 출판부의 경우 1년에 불

가을 두 차례 출판부 교양 및 전공서적을 할인 판매해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부는 현재 출판부장과 행정직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출판부에서는 단순히 교정보는 정도의 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출판의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 국립대 출판부 직인수를 살펴보면 ▲부산대: 부장(1)·과장(1)·직원(4) ▲전남대: 부장(1)·행정직(3)·생산직(10) ▲충남대: 부장(1)·직원(4) ▲경상대: 부장(1)·편집(1)·행정(1) ▲경북대: 부장(1)·차장(1)·편집(1)·기능직(1)·기성회직(1)·관리인(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판부는 이날초 제주지역 언론계에 한해 학내·외 저자(우리대학 강사, 타대학 교원, 외부 권위자)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도서의 초판 인쇄본은 저자에게 10%의 인세를 지급하고 출판비용에 비해 판매실적이 높았을 때는 10%의 인세가 더 지급되도록 출판부 시행세칙을 일부 보완·수정했다.

김민영 기자

제1회 재외 제주도민 고향발전 워크숍

27일 아라호 선상서...제주 발전 간담회 개최



제1회 재외제주도민 고향발전 워크숍이 재외 제주도민과 학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아라호선상에서 있었다(재외제주도민 고향발전 워크숍 장면)

제1회 '재외 제주도민 고향발전 워크숍'이 지난 27일 재외 제주도민(재외도민회협의회 1명, 재일본도민협회 1명, 부산도민회 1명, 서부경남도민연합회 4명, 인천도민회 2명) 35명과 학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가

한 가운데 아라호 선상에서 있었다. 이날 재외제주도민들은 서귀포항에서 아라호에 승선한 이후 △해상관광(서귀포~마라도) △워크숍(총장과 대화) △선상낙시 △제주발전전을 위한 간담회 등의 행사에 참여했다.

조총장은 아라호 제2강의실에서 진행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제주대학교'라는 주제의 워크숍에서 "매년 재외동포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재외동포들도 21C 제주도 인재양성 협력안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총장은 이날 강민선(재일본도민협회 상임이사, 본적 성산읍 성산리)씨에게 제주도 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성의 표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대학관계자에 따르면 "어려운 시기에 선조가 물려준 고향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재외도민들에게 고향을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잊혀져가는 민족성과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 각지에서 쌓은 훌륭한 식견을 나눔으로써 고향 제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관련인터뷰 3면)

유정래 기자

제1회 아라학술제 오는 16일까지 접수

논문 등 각 분야 전공 살린 작품

'제1회 아라학술제'가 총학생회(회장 이성은 관광경영 4)·학생처(처장 오민원 체육학과 교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표)참조>

이번 학술제에서는 각 학과와 동아리에서 제출한 논문 및 각 분야의 전공을 살린 사진·비디오·디스켓 작품 등에 대해 △주제의 독창성 △진취성 △전공의 특수성과 학과 홍보 △진로와 학과에 대한 발전 전망 △우리대학 학술문화 발전에 대한 고민 등을 심사하게 된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수상자는 학생대표와 소속 학과의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 1등으로 추천된 작품 가운데 학생처와 총학생회에서 선정된 교수와 학생대표의 최종 심사로 결정하게 된다.

또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최우수상(자주상)에 총장상 및 장학금 50만원, 우수상(정의상)에 총장상 및 장학금 25만원, 진취상에 총장상 및 장학금 10만원 등이 각각 수여되는 데 학생의 날인 11월 3일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이성은 학우는 "학생들의 다

<표>

구분	아라학술제 주요내용
주제	각 분야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내용(기본 논문 이외에 사진·비디오·디스켓 등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포함)
심사기준	△주제의 독창성 △진취성 △전공의 특수성과 학과 홍보 △진로와 학과발전 등에 대한 발전 전망 △우리대학 학술문화에 대한 고민
시상내역	△최우수상(자주상)-총장상 및 장학금 50만원 △우수상(정의상)-총장상 및 장학금 25만원 △진취상-총장상 및 장학금 10만원
접수기간	9월16일(수)~10월16일(금)
접수장소	각 단과대 학생회·동아리 연합회·총학생회 사무실

양한 학문의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 학술제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어서 미숙한 점이 많으나 문외의자가 잇따르는 등 학우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영운 기자



제79회 전국체전 축구·탁구·테니스 경기 우리 대학서 열려

지난 25일 개막된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축구, 탁구, 테니스 경기가 우리대학 대운동장·실내 체육관·테니스장에서 열렸다.

사진/고성식기자

지면안내

■단과대별·학과별·동아리 축제 진단...3

일부 학과의 행사가 너무 소비 지향적이고, 또 전반적으로 행사 대부분이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탈냉전시대의 한미동맹...4

현재의 동북아 지역은 대결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에게 이러한 국제환경은 통일외교를 비롯 북한의 위협이나 일본의 재무장 대처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10대 아이들의 음악이 나쁜 이유 세 가지...6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10대들의 대중 음악. 그들은 스타시스템에 의해 조작된 모방상품일 뿐이라는 강창민씨의 얘기를 들어본다.

■정치권 사정의 문제점과 전망...7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정치권 사정 때문에 국회운영의 파행과 이에 따른 민생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사정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정치개혁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과 방향이 뚜렷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법과 고용실태...8

법적 강제성이 없다. 게다가 요즘의 경제 현실에서 제일 먼저 실직 위험에 처해 있는 장애인들에게 대한 대책은 미미하기만 하다. 오승진 변호사와 기자의 현장취재를 통해 그 실태를 살펴 본다.

본사사령

고성만(무역 1) 수습기자에 임함
9월21일자
제대신문사

제주대학교 병원을 3차 진료기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100만 제주인의 의지와 역량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글

제주대학교는 지난 '96년 제주도민의 결집된 의지에 힘입어, 전 도민이 염원하던 의과대학 설립이 승인되었고, '98년도에는 의과대학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민의 오랜 숙원인 3차 진료기관을 목표로, 제주대학교 병원 건립을 간담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건립되면 도민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혜택(서비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창출 등 많은 이익을 도민들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대학교 병원은 제주도민의 병원이입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이 도민의 병원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도민 모두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병원이 건립되어야 하며,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한 병원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제주도민의 지지와 성원을 기반으로, 정부에서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이 되도록, 대정부의 이해를 얻어내는 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1998. 9.

제주대학교 총장 조 문 부 드림

3차 진료기관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 매년 환자의 31%가 육지지역 3차 진료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 소중한 도민의 생명, 앞서서 잃어야 합니까?

⇒ 육지지역 주민보다 불평등한 대우를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 96년도 육지지역 병원 진료에 따른 지역경제 유출액이 연간 310억원입니다.

(의료비 : 65,172명에 101억 3천만원, 간호 및 교통비 등: 208억 7천만원)

⇒ 육지지역 병원 진료에 따른 교통비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제주대학교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춘 3차 진료기관으로 건립되어야 제주도민들의 의료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게 됩니다.

⇒ 병원건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시작해도 앞으로 10년 후에야 주민과 우리 후손들이 혜택받게 됩니다.

⇒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최고의 병원이 됩니다.

⇒ 복지제주 건설의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건립은

◎ 제주도민에게 최고의 의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체적 휴양지 및 정신적 요양지로서 세계적인 병원이 될 것입니다.

◎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녀 잠수병 등 지역특성질환 치료 및 연구기관이 설치됩니다.

◎ 세계 의학분야 저명한 석학들의 집결지가 될 것입니다.

◎ 고품질·고부가가치의 병원이 될 것입니다.

◎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 우리 자녀의 학비부담을 크게 덜어드립니다.

◎ 많은 고급인력 취업이 보장됩니다.

병원 건립 개요

◆ 병원 규모

○ 병상 수 : 500병상 ○ 건물면적 : 45,000㎡ ○ 부지면적 : 165,000㎡

◆ 투자규모

○ 시설비 : 838억원

○ 자동차 시스템 : 142억원

○ 의료장비 : 386억원

○ 비품비 : 45억원

계 : 1,411억원

◆ 장소

제주시 아라동 소재

◆ 조직인력

○ 의사직 : 170명

○ 행정·관리직 : 370명

○ 간호직 : 260명

진료과목

1. 일반진료과목

내과·신경과·소아과·정신과·피부과·일반의과
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산부인과·안과
이비인후과·비뇨기과·결핵과·재활의학과·마취과·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임상병리과·해부병리과·가정의학과·핵의학과·치과

2. 특성화 진료과목

·노인·신경정신·만성 퇴행성 질환 전문
·지역특성질환 전문



제주대학교
CHEJU NATIONAL UNIVERSITY

690-756 제주시 아라 1동 1번지
Tel: (064) 754-2114, 3114
http://www.cheju.ac.kr
E-mail: cnu@cheju.ac.kr

■단과대별·학과별·동아리 축제 진단

일부서 호텔선호·강의공결요청
경제현실·면학분위기 조성 거리 멀어

학과·단과대별 축제가 지난 주부터 연이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행사가 소비지향적이고 면학분위기 조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우려되고 있다.

일부 학과의 경우 '00학과의 밤' 행사 장소로 호텔연회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 1백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겨우 마련했으며 다른 장소로 옮기면서 추가로 1만원씩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과 모학우(2)는 "축제라는 이미지가 항상 돈 따위의 물질적인 것들과 연관된다"면서 "차라리 1년에 한번 열리는 학과 축제에 맞게 초청강연 또는 토론·발표회 등의 행사 내용에 신경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과의 이모(3) 학우는 "호텔 연회장에서 파티를 여는 것은 이미 관례"라며 "이런데도 어김없이 호텔연회장서 행사를 했지만 예전처럼 거금이 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 학우는 또 "우리 단과대는 다른 단과대와는 달리 호텔에 가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참여율도 높다"고 덧붙혔다.

단과대·학과·동아리 등의 축제가 거의 2주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데에 따른 수업결손과 면학분위기 저해도 문제되고 있다.

축제 기간을 살펴보면 단과대가 △인문대=9월 29일~10월 1일 △법정대=9월 30일~10월 2일 △경상대=9월 24

일~25일 △사범대=9월 30일~10월 2일 △자연대=9월 22일~23일 △공과대=9월 28일~30일이며 학과 및 동아리 축제 등도 단과대 축제기간 중에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할 경우 강의공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강의를 위해 전공은 물론 교양과목 강의를 각 단과대별로 차례로 공결처리 신청을 하는 바람에 면학분위기를 흐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상대 모교수는 "처음에는 축제기간을 누리는 뜻에서 허락을 했지만 이제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생각할 뿐"이라며 "강의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파해지는 강의 받는 학생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2백여명의 학우들을 대상으로 교양과목을 강의하는 농과대 모교수 또한 "교양과목의 경우 보강이 어려워 강의는 꼭 하려고 하는데 요즘처럼 연이은 행사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학과들은 이런 행사가 소비지향적이고 면학분위기를 흐린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텔 이용이나 강의공결 요청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학과 학생회 간부는 "1년에 한번뿐인 학과 행사인데 학업에서 벗어나 신나게 노는 게 잘못이냐"며 "가격도 저렴하고 참여도 괜찮고 일석이조의 축제행사를 치렀다"고 말했다.

반면 이 학과의 모학우(2)는 "호텔연회장 파티는 관례여서 간부진들이 하는대로 따라갈 뿐"이라며 "경제도 어려워졌으니 보다 달라진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주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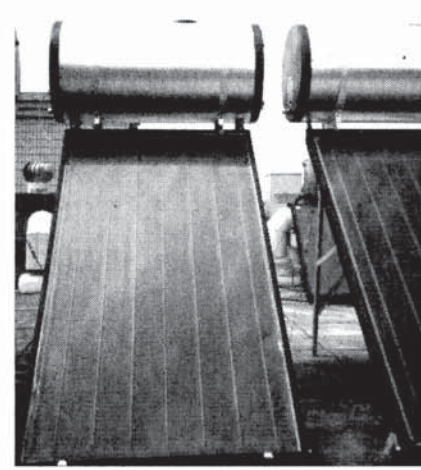
자연 순환형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 개발
에공 벤처기업, 태양열이용 활성화 효과...국내처음

에너지공학과 벤처기업(공동대표 천원기 교수·윤영진(주)신우 GE 대표이사)이 최근 국내 처음으로 자연순환형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자연순환형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은 추운 겨울에도 파손의 염려없이 태양열을 이용하여 물을 직접 데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부동액을 이용한 간접식 시스템에 비해 그 효율이 10%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제작비도 저렴하고 유지 보수에도 편리해 태양열 이용의 활성화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원기 교수에 따르면 "이번 개발된 시스템은 일본의 Asahi Solar사에서 시판하고 있는 직접식 시스템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 공정도 단순하여 시장(시장 규모 약 2천억원) 진출 시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내 시판은 물론 외국 시장 진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에너지공학과 벤처기업은 이번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이미 5건의 기술을 국내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곧 미국, 일본과 독일 등에도 특허 출원할



◇에너지공학과 벤처기업이 국내 처음으로 자연순환형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예정이다.

이와관련 현성택(3)학우는 이번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4학년 등록금 등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한편 내년부터 신우 GE의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주)신우 G·E 관계자에 따르면 "현군은 태양열 열다이어드 시스템 제작과 온수기 개발에 참여한 노고가 인정된다"면서 "대학원 진학 시에도 학업 성취도에 따라 장학혜택을 받게 되며 졸업 후에는 (주)신우 G·E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공학과 벤처기업은 작년 10월 에너지공학과와 (주)신우 GE가 공동으로 창업, 부속연구소내 대체에너지 실험실을 통해 시스템개발을 해왔다.

전원희 기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총동문회 창립총회

사회교육전공 총동문회 추진위원회(회장 고석희 한림교 교사)주최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총동문회 창립총회가 재학생과 동문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24일 오후 6시 30분부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있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총동문회는 매년 7월 중 정기총회 개최, 학술활동·모교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고 총동문회장에 고석희 교사, 부회장에 허균진(제주일교)교사·양창선(제주북교)교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와관련 사회교육과(학과장 한석지 교수) 일반사회교육전공에서는 이번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동문회 결성과 지난 7월 17일 중문초·소년원 등에서 있었던 학부동문·아우회 행사를 지원하는 등 동문회 조직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교육과는 또 오는 10월 17일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교직에 몸담고 있는 동문들을 대상으로 경인지역 동문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운 기자

98 단과대축제 2일까지
전시회·체육대회 등 실시

농과대와 해양대를 제외한 6개 단과대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야간강좌부 주최 98 가을축제가 지난 22일 자연대 '연광축전'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가을축제는 △자연대 '연광축전'(9월 22·23일) △경상대 '98 씨울제'(9월 24·25일) △야간강좌부 '야대인의 한마당'(9월 18일~20일)이 지난주에 끝났고 △인문대 '문화주간'(9월 29일~10월 1일) △법정대 '한라청맥제'(9월 30일~10월 2일) △사범대 '98 사록 대동제'(9월 30일~10월 2일) △공과대 '98여울제'(9월 28일~30일)

순으로 학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문대 학생회(회장 강성운 국어국문 3)는 문화주간 기간에 인문대 세미나실과 강의실 등지에서 4·3진상규명 소모임 '오늘또기' 시화전, 과연합 시화전, 4·3거리 전시회, 사진전, 벽화제(9월 22·23일) △자연대 '98 씨울제'(9월 24·25일) △야간강좌부 '야대인의 한마당'(9월 18일~20일)이 지난주에 끝났고 △인문대 '문화주간'(9월 29일~10월 1일) △법정대 '한라청맥제'(9월 30일~10월 2일) △사범대 '98 사록 대동제'(9월 30일~10월 2일) △공과대 '98여울제'(9월 28일~30일)

법정대 학생회(회장 김성훈 행정 3) 한라청맥제에는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4·3관련 영화 상영, 오후 5시



◇단과대 축제가 농과대·해양대를 제외하고 2일까지 열린다.(사진은 지난 30일 학생회관에서 열린 사범대 98 사록대동제 전야제)

부터 전야제, '면양기 정발 축구대회'(행정학과) △10월 1일 교수님과과의 대화(행정학과), 학과신문 발행(언론홍보

학과), 전시회(정치외교학과) △10월 2일 모의재판 '복제인간 살인죄 인정여부?'(법학과), 면양인의 밤(행정학과) 등이 마련된다.

사범대 학생회(회장 박소영 국어교육 3) 98 사록 대동제에는 △9월 30일 교육거리, 4·3항쟁 거리, 참교육 물품 판매 사업 △10월 1·2일 사록 대동제 체육대회 행사가 개최된다.

공과대 학생회(회장 권한대행 이현상 에너지공 3) 98 여울제에는 9월 2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9·30일에는 축구, 워드 빨리치기(애국가 4절까지), 물 종선 던지기, 여울 영화제, 주점 등의 행사와 함께 각 학과별로 학술제와 전시회가 진행된다.

한편 자연대 연광축전(9월 22·23일)에서는 합팔떡 받기, 동전쌓기 대회, 연광 장기자랑이, 경상대 씨울제(9월 24·25일)는 각 학과별로 학술제와 과의 날 행사를, 야간강좌부 '야대인의 한마당'(9월 18일~20일)이 대운동장과 한라터에서 체육대회를 중심으로 행사가 있었다.

진수미 기자

이성은 총학생회장 강제 연행
지난 27일 학내 본관 뒤편 도로서

이성은(총학생회장, 제주지역 대학생 대표자회의 상임대표 관광경영 4) 학우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중 지난 27일 오후 12시 45분 본관 뒤편 거리에서 학내에 잠복해 있던 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이날 이성은 학우는 본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학내를 걷고 있던 중 보안 수사대 경찰 5명에 의해 강제 연행돼 현재 제주시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오는 10월 2일 교도소로 이송될 것이다.

현장에 있던 한 학우는 "경찰들이

심한 몸싸움 끝에 총학생회장을 봉고차에 태웠다"며 "뒤늦게 달려간 학생회 간부들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봉고차가 갑자기 출발해 경찰 한 명이 타지 못했다"고 총학생회장 연행 당시의 장면을 설명했다.

각 자치기구 회장들은 총학생회장 이 연행됨에 따라 27일 오후 8시 임시 비상회의를 열고 학내에 규합대를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8일 비상총연회에서 권한대행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운영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총장에게 경찰의 이번 연행에 대해 항

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후 1시 백두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공적 체전을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필요한 시기에 경찰들은 체전기간을 자신들의 특전과 고과 점수를 올리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규탄하고 "학생 연행에 대해 공안당국과 국민의 정부, 보안수사대 학내 난입에 따른 각성과 철수"를 요구했다.

문성철(해양대 학생회장 해양토목 공 4)학우는 "일행에서 이탈했던 보안 수사대 소속 경찰은 사과문을 작성하고 27일 오후 5시30분경 경찰서로 돌아 갔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경찰청장은 27일 오후 한라대에서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식 기자



우리 친구라네!

0...우리 친구라네

요즘 학우들이 기본적인 예의조차 망각하는 듯 해 씁쓸한 마음.

무슨 말이고 하니, 학생회관 학생 식당에서 한 학우가 밥을 떠주던 아주머니에게 "아줌마, 밥 더 줘", 같이 근무하는 아주머니들은 그 상황이 친근함보다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어이없는 표정으로 혀만 찡그리는 것. 주위에 있던 이들도 아주머니들의 반응에 공감.

저런 예의없는 학생의 태도 바로 잡을만한 '교양' 과목은 없나요?

0...언제까지나 '보여주기' 식이 이런 경우엔 나쁘지만은 않은가 봐.

무슨 소리고 하니, 그동안 주차장을 방불케 하던 교문 앞과 왕벚나무 길가가 전국체전에 따른 엄격한 단

속 덕분에 볼 수가 없게 됐으나 학내 구성원들은 이런 산뜻한 모습도 체전 폐막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

그래서 교문밖의 골치 덩어리였던 것들이 사라졌어도 구성원들은 별다른 아쉬움없이 반응.

0...공공물에 대한 의식 전산실습시간, 소위 재수없는 자리(?)에 앉게 된 학우들은 수업도 못 받고 교수님 얼굴만 멀뚱멀뚱.

전산소 실습실에는 수업내용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가 대다수여서 학우들이 불만이라. 알고 보니 전산소에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학우들의 손만 거치면 프로그램이 이리저리로 옮겨지거나 사라져 버려 다른 학우들에게 불편이 돌아간다는 것.

프로그램을 제멋대로 옮긴 후 제자리에 돌려놓지도 않는 학우들이 자신의 컴퓨터도 그렇게 다룰지. 아마도 전산소 실습실 컴퓨터처럼 하지 않을 것이어서 씁쓸.

0...빚 좋은 개살구 각 단과대의 축제 기간인 요즘 각 학과마다 '00의 밤', '00학과 페스티벌' 등으로 학내가 술렁.

각 학과마다 저러하면서 의미 있는 행사를 치reibore 고심하는 반면 일부 학과에서는 무리하게 학과 학생들의 쌈지돈을 끌어 여전하 2시간 정도 이용하는 데 1백여만원이 드는 호텔 연회장을 빌려 행사를 치른다는 소식.

아직도 실속보다는 걸만 화려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IMF 시대라는 걸 염두해야 할 듯.

힘모아 나라사랑 뜻모아 겨레사랑

창업자 유일한 박사
1971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실천,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았다.



父傳女傳



딸 유재라 여사

1991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았다.

2대에 걸친 재산의 사회환원-
유한의 정신은 나눔의 정신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유한의 기업정신

유한은 기업이윤의 40%를 사회에 환원하여 각종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지켜온 유한양행 72년

'좋은 약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창업 이념은 끊임 없는 우수약품의 개발로 이어져 버들표는 신용의 상징이 되었으며 각종 치료제를 해외로 수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유한의 연구개발

새로운 간장질환치료제(YH-439)와 항재앙 약물(YH-1885), 그리고 에이즈 치료원료를 개발하는 등 한 순간도 멈추지 않는 유한의 새로운 신약개발은 건강한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신용의 상징-버들표
유한양행

현장에서

취재유감

지난 24일 '실직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 취재할 때의 일이다. 모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자 기준에 '농과대, 자연대(의과대 제외) 학생만'이라는 규정이 있어 "이건 왜요?"라고 물었다. 담당자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런 질문이 어디 있나. 왜요가 어딤어? 주는 사람 마음이지"라며 "어떤 경우는 여자라서 안주는 데도 있다"고 대답했다. 기자는 궁금한 점을 확실하게 해소해 정확한 기사를 쓸 수 있기에 질문을 한 것이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마침 필요한 자료가 눈에 띄자 복사를 요구했고 또 다른 담당자가 복사해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 담당자는 펜으로 적어가라며 "네가 이런 게 왜 필요하나. 년 알 필요 없어."라고 거듭 충고(?)하는 것이다. 그 담당자는 또 "야! 학생들이 장학금을 이용하는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식으로 써라"며 계속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날 자료가 확실한 지 확인하는데 "어제 물었던 것을 왜 물어?" 하며 기자 수첩을 뺏어 "이거 아니냐"며 다그쳤다. 또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이름과 학과를 알려는데도 "못 말해주겠다.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할래?"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학생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말이다. 그 이후 다른 기자가 찾아가 취재를 하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실직자 장학금 받는 게 당사자는 창피할 수도 있다"며 전날과 다른 말로 기자를 설득하려 했다.

결국 공문으로 요구해도 '말해 줄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기자 교육 잘 시키라"는 말만 듣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담당자가 기자의 황당한(?) 취재 태도 때문에 불쾌했다면 이는 사과할 일이다. 그러나 학생기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 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

각 부서 담당자들이 해야 하는 많은 일을 때문에 귀찮을 수 있다. 마한 가지로 학생들 또한 여러 궁금한 사항이 많다. 담당자가 '알 필요 없다'고 미리 선입견을 갖는 것은 삼갔으면 한다. 기자는 이들 구성원들의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소현기자

임용조건 강화 · '교원복무' 신설 등 '대학교원...규정 개정(안)' 10월 하순 공청회

'대학교원 인사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설명회'가 홍성택(물리학과 교수) 교무처장과 관계자 및 교수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공과대 C동 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주대학교전임교원임용규정(안) △제주대학교전임교원신규채용전형지침 개정(안) △전임교원 승진·재임용·정년보장 및 조기재임용 심사지침(안) △교수업적평정표 평정방법 및 작성요령 △교수임용제도 개선방안 등의 발표가 있었다.

현명택(기계에너지생산공학부 교무부처장) 교수는 "기존의 임용 절차가 객관성이 결여되고 교수업적이 제대로 반영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객관성 유지, 임용조건 강화 및 합리화, 승진·재임용의 차별화 등으로 대학교원 인사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주대학교전임교원 규정(안)은 총칙, 신규임용, 승진임용 등 7개장과 경과 조치를 포함한 부칙 등, 총전 제주

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을 구체화하고 제7장 교원의 복무 부분이 추가 신설됐다.

또한 제주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관해서는 △전임교원 공개채용시 학과의견 중시 △공채후 전공변경 불가 △학과별 외국 우수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 20%이상 채용 원칙 △전임교원 4명 이상 학과에서 동일고교 또는 동일 대학, 동일 학과 출신이 50%를 넘지 못함 등을 기본으로 하는 전형지침이 제시됐다.

이날 설명회에 대해 농과대 한 교수는 "교원들에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루는 자세가 아쉽다"며 "제24조의 경우는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고성식 기자

社說

대학 축제의 구조개혁

요즘 우리 대학의 게시판에는 각종의 축제 행사를 알리는 벽보로 가득 차 있다. 9월 25일을 전후하여 각 단과대와 학과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명칭의 축제 행사들이 열리고 있으며, 교수들은 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이 많은 행사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의미와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리라고 믿고 싶으면서도, 마치 미인대회에 나선 미인들의 옛비슷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각 단과대 및 학과에서 배포하는 팸플릿이나 벽보는 저마다 자기 개성을 뽐내듯 크기와 모양 및 색채와 글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정표의 행사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먹고 마시고 부르고 보는 내용의 각종 오락 및 표현 행사들과, 말하고 듣는 학술제 및 강연회, 뛰고 달리는 체육 행사라는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내용만으로 본다면, 대학의 축제 행사로서는 아마도 손색이 없는 것 같으며, 달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런 행사의 의미와 목적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런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가? 안내장에 담겨있는 새 역사 참조, 대중과 함께, 시대와 역사의 고민, 젊음의 아름다움 등과 같은 문구를 구현하는 학술제 및 토론회는 구색 맞추기 위해 겉다리로 끼워놓은 것 같은 느낌을 감출 수 없다. 길트기를 비롯한 첫째 내용의 각종 행사들에는 북적대다기도 왜 정작 의미있는 학술제에는 참여도가 낮은가? 참여도의 측면에서 볼 때, 축제는 마치 즐기 위해서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집행부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의 놀이를 개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대학처럼 포르노를 상영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아마도 그것은 착오였을 것으로 믿고 싶지만, 여하튼 대학 축제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지 않으면 안 되는 계기임에는 분명하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축제 행사의 실익 및 여파이다. 우리는 축제를 통해 무엇을 얻는가? 아마도 수업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답은 부정적일 것이다. 예컨대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공동 수강하고 있는 교양과목의 경우 단과대 별로 일정이 다른 축제 행사로 인해 보강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따라서 강좌에 따라 개별적으로 강의에 불참하거나 휴강해야 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게 되며, 이것은 행사 참여도의 측면에서나 강의에 있어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9월 축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별 학과별 축제 행사를 아래대 동체처럼 일정기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있지만, 그것은 수업 결손을 줄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3가지 유형의 축제 내용을 개별적으로 분리시켜 각각에 대해 하루씩 일요일에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이 방안의 문제는 참여도이다. 아마도 첫째 내용의 행사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둘째와 셋째 내용의 행사에는 참여도가 낮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관점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모든 행사 내용에 있어서 대동소이한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자. 학술제가 선전전통의 장이 아닌 이상, 관심있는 자만이 말하고 들으며, 그럴 자격이 있다. 모두가 말하고 들을 의무는 없다. 참여도를 높이려면 모두가 말하고 들을 이유를 찾아야 하지만, 찾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찾았다해도 높은 참여도를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대학은 인가를 먹고 사는 연에게가 아니며, 상품을 팔고 사는 백화점이 아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 해도 존재해야 할 학문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존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 처럼, 대학 축제에는 참여도가 적다해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소수를 위해 학술제를 열어야 할 당위성이 있을 뿐이다. 대학 축제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저지거리 또는 군중집회'가 아니라, 관심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불협화음의 장이며, 가능하다면 그 속에서 화음을 창조해 내고자 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학사일정

△10월 7일 2학기 수업주수 1/3신
△10월 19일~24일 2학기 중간시험
△10월 20일~31일 박사학위 청구논문 1, 2차 공개발표
△11월 2일~7일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11월 13일 2학기 수업주수 2/3신
△11월 23일~12월 5일 9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대의원 총회, 참여저조로 무산 하반기 사업계획 등 확정 못해

'98학년도 하반기 대의원 총회(의장 김석우 기계공 4)가 지난 24일 오후 6시30분 법정대 중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직 대의원 1백94명 중 41명(위원장 제출자 10명 포함) 참가에 그쳐 재직 과반수 미만으로 무산됐다.

이날 대의원 총회는 상반기 사업

법정대 한 학우는 "상반기 사업, 사와 하반기 사업 등을 논의할 기회가 학생들의 관심 저조로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대의원회는 총회가 무산됨에 따라 총회안건을 오는 10월 1~2일쯤에 열리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대의원회 한 관계자는 대의원 총회 상임위원회 개최 이유에 대해 "학부제 총무부 준비로 시간에 쫓겨 대의원 총회를 재개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고성식 기자

내년에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도민회측에서도 행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제주대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은? 제주대 발전은 제주대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의 의해서 비롯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재외도민들도 유능한 인재들이 제주에서 공부하고 제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그런만큼 제주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해서 제주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길정씨(부산도민회 고문, 본적 구좌읍 하도리)
△행사참가 동기는?
이번 전국체전을 보러 왔다가 마침 제주대학교에서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해양실습선을 이용해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참가했다.
△도에서 보는 제주도는? 제주도는 잠재력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관광산업분야에서는 동북아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행사중 기억에 남는 것은? 제주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의 세밀함에 감탄했다. 특히 트롤링을 하면서 해산물을 낚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제주대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은? 교장권 총장 당시 후배들을 위해서 의과대 발전기금을 기탁한 한 바 있다. IMF라는 국난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작지만 조금씩 도움을 주고자 한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끊임했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비교

도 되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도민의 근면성과 성실성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순원씨(재일본도민협회 회장, 본적 한경면 두모리)
△이번 행사를 평한다면? 일행들이 이번 행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런데 참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다.
△행사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트롤링이 가장 흥미로웠다. 처음 경험하는 것인데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제주도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재외도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주대 발전에 관해서는 돌아가서 많은 얘기를 해야겠다. 재외도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노력하겠다. 유정래 기자

인터뷰 -재외제주도민 고향발전 워크숍 참가자

“고향 발전 위해서라면 언제든 돕겠다”

제1회 '재외 제주도민 고향발전 워크숍'이 지난 27일 아라호 선상에서 있었다.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재외도민들, 그들의 제주도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재외도민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전병돈씨(재외도민협의회 사무총장, 본적 제주시 외도동)
△행사참가 동기는?
한라문화제와 전국체전 관람차 왔다가 제주대학교에서 재외도민들을 위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참가하게 됐다.
△제주대에 바라는 점은?

지난 8월 3일 재외동포 2, 3세를 위한 하계향토학교가 있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기성세대를 위해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반갑다. 앞으로는 1박2일이나 2박3일 정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대학캠퍼스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행사에 대해 느낀 점은?
제주대학교에서 국내외 재외 제주도민 2~3세를 위한 만남의 장을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8월에 그 행사를 '보고서 기성세대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면 했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반가운 마음으로 참여했다.

제18회 백록학술상 현상공모

■ 분 야

- 주제논문(70매 내외)
- 제주도의 사회변동 및 개발, 환경에 관한 내용
- 일반논문(70매 내외)-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

■ 시 상

- 주제논문 당선작 1편·30만원
- 일반논문 당선작 각 1편·30만원

■ 응모마감: 11월 1일

(백록학술상 응모작품'임을 명기할 것)

■ 응모자격 : 우리대학교 재학생

■ 당선작발표 : 11월 23일

■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람(☎754-2278~9)

시대를 바라보는 지성의 눈빛 제대신문사

사진 공모전

1.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
2. 작품 내용 : 주제는 자유
3. 입상자 시상

시상구분	인원	시상내역	시상구분	인원	시상내역
대상	1	50만원	3등	3	10만원
1등	1	30만원	가작	20	5만원
2등	2	20만원	계	27	190만원

4. 접수기간 : 1998.10.1(목) - 10.17(토)
5. 작품규격 : 칼라 또는 흑백 11"×14"
6. 접수처 : 학생처 학생과(☎754-2041)
7. 기타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입상된 작품중 대학 홍보 또는 기록보존용으로 필름을 요구시는 제출하여야 함.

1998. 6.

제 주 대 학 교 총 장

『학생생활연구지』 제20집 원고모집

- ◆ 주제 : 학생생활 실태, 의식구조, 진로 및 상담 등 제반 학생생활에 관련된 연구논문
- ◆ 종류 : 연구논문
- ◆ 제출처 : 학생생활연구소 ☎ 754-2304
- ◆ 제출요령
 -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원본 원고와 디스켓을 함께 제출.
 -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논문은 영문초록 첨부할 것.
- ◆ 원고마감 : 1999년 1월 9일
- ◆ 논문 채택 여부는 논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학 생 생 활 연 구 소 장

■ 탈냉전시대의 한미동맹

통일외교·북 위협·일 재무장 대처에 매우 효과적 미, 국제무대의 독보적 지위·리더십 유지전략 변함 없을 것

현재의 동북아 지역은 냉전적 대결 구도가 잠재하면서도 개별 국가 사이의 경제적 교류는 확대되고 있어, 대결과 협력의 관계가 공존하고 있다.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한·중·일 삼각관계가 정치적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일 간에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이다.

새로운 국제환경은 고정변수의 상설로 인하여 안보환경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냉전시기에는 환경이 유동변수이고 우방이 고정변수였던 반면에 현재는 고정변수가 없어진 상태다. 일본의 경우, 보수화 경향, 민족적 정체성 확립의 노력으로 군사력 재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인권위성 발사를 재무장의 기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예산 적자와 과다 군사비 지출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감 확산으로 인하여 미국이 아·태 지역에 현 수준의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침시럽고, 사일이 지나면서 아·태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자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의향이 있는지 - 예를 들어 오키나와 주 민들의 미군철수 주장 - 또한 통일 이후 북한이라는 주적이 없어진 상태에서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의 정당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이 현재와 같은 역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특히 미국이 자국 이익 중심의 무역 정책을 지속하는 경우, 아시아 각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으며, 경제적 갈등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한미 관계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긴밀한 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통일을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한미관계는 새롭게 검증받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이것이 되어있지 않으면, 냉전시대에 지속되고 공유되어 온 한미동맹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통일 이후에는 의심받게 되고, 한미간의 일치된 안보전략 구사가 힘들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탈냉전시대가 제기하는 한미동맹의 근거와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제정치가 새로운 체제로 이행되고, 그 성격과 힘의 분포에 있

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국제 체제 시기에 형성된 동맹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사국을 모두가 동맹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이것은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동맹관계가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냉전시대에 한미동맹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련이 무너져 동맹의 주된 목적이 없어진 상황에서 한미동맹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일찍 생각하기에 미국의 입장에서 냉전전시대 미국의 입장에서 냉전전시대의 한국이 지니는 매력 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소련의 위협이 없어진 이상,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 만큼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의 적 때문에 동맹이 긴밀해진다든 이 논리에 입각해 본다면, 북한이라는 요소를 계산에 넣더라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국을 위협할 수는 있었지만, 미국의 핵심적인 안보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논리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켜 주 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이익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훨씬 더 경감될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의 맹점은 탈냉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롭게 창출된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원인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은 탈냉전시대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 목표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미국이 지금 세계 무대에서 누리고 있는 독보적인 지위와 리더십을 지켜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보아 다음에 이어질 질문은 "그렇다면 새로운 국제 또는 지역 체제 속에서 미국이 최소의 비용을 들이면서도 자신의 리더십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이냐"가 될 것이다.

만약 그 어떤 국가라도 전세계적 규모에 있어서의 패권을 가졌다면, 지역에서만, 전세계적 규모에 있어서건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status quo)을 취할 것이다. 이 현상유지 정책이란 현재 미국이 전세계적 수준

에서 누리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도전 을 예방하기 위해 역내의 세력국이 세계적 규모의 라이벌로 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세력들을 역내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역내의 한 세력이 그 지역 전체에 걸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전지구적 규모에서 단일한 리더십을 가진 국가가 변함없이 취해왔던 전략적 사고의 기본 방향이다. 이는 19세기의 대영제국에 대륙 미국의 열강들을 누르고 자신의 리더십을 지키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전략이었으며, 그 이전의 다른 제국들도 역시 이 전략을 취해왔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본 전략하에서 한국과의 동맹관계 조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미국이 취해야 할 -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듯한 - 합리적인 대동북아 정책은 일본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와 같은 열강들이 역내에서 지역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 세력균형 체제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바로 이 논리에서 미국이 마일 안보관계의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과 마찰을 빚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을 자신의 진영 내에 들로써 역내 균형관계를 조율하는데 필요한 여분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명백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세력균형 전략에 있어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 협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필요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해방이후 한국의 외교정책은 동맹이나 편승(Bandwagoning)이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미·소의 대결 속에서 복은 소련의, 남은 미국의 영향력에 좌우될 수 밖에 없었다. 편승은 일반적으로 강대국의 위협에 약소국이 동조하는 것으로 개념 지지만, 이러한 편승이라는 선택도 약소국이 일정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기 이전에는 힘들다. 그러나, 편승을 단순히 수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기 확대(self-extension)의 노력으로 재정의하고,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한미동맹의 경우에도 강대국의 위협에 의한 수동적 편승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이익 추구의 동맹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미동맹

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목적 뿐 아니라, 한국이 추진하는 핵심적 외교 목표인 통일 외교에 있어 그 유용성이 매우 높다.

통일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아·태 지역국가들 모두의 관심사이며, 미국을 포함한 이 지역 어떤 국가들도 우리와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들은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상대적 국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통일이라는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보다는 분단이라는 상대적 안정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주변 외부적 도전은 근본적으로 주변 강대국간의 관계에 의하여 형성될 것이다. 통일 한국의 등장은 현실적으로 주변 강대국들간의 관계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이는 통일 이후 한국의 위상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면서도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심각한 군비 확산경쟁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재 일·미조약으로 인해 일본이 군사·안보적 영역에서 독자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나, 만약 이 조약이 붕괴되거나 약화되어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될 때, 일본은 자국 안보를 위해 독자적인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런 움직임이 방어적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주변국들은 이런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지역을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핵의 절대적 역지력을 믿고, 한국도 핵무기로 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핵무기 경쟁을 유발시키고, 한미동맹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매우 모험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의 핵심적 목표가 핵확산방지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핵무장은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 달성에 심각한 위협을 제공할 것이며, 한미동맹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다. 국내적 측면에서도 핵무기 관료들의 안전문제와 개발과 실전 배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국방예산과 안보 전략 전체에 상당한 수준의 부담을 줄 것이다.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오해야 할 안보환

나의 학문 나의 연

-초지학

초지, 목초 공급원·오염물질 정화기능도

나는 마소가 뛰노는 넓은 초원을 사랑하여 초지학을 전공으로 택하게 되었다. 초지학(草地學)에서는 1) 초지의 생태 2) 목초작물 3) 목초의 육종 4) 목초의 생리 5) 초지의 조성 6) 초지의 관리 7) 초지환경 8) 목초의 영양 9) 목초의 저장 및 가공 10) 초지의 이용 11) 초식동물의 위생 12) 초지의 경영 및 경제 13) 초지용 농기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문의 내용상 동물자원과학과내의 타 분야와는 달리 식물에 대해 깊게 공부해야 한다.

초지를 구성하는 풀은 소나 다른 초식동물들이 먹는 목초이다. 이 목초는 에너지함량이 낮고 섬유소함량이 많은 사료이므로 조사료(粗飼料)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식가축은 반추위를 갖고 있어 위내 미생물이 섬유소를 소화할 수 있으므로 목초를 충분히 먹어야 생리적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목초는 식물형태적 특성에 따라서 콩과목초와 화본과목초로 나누며 이중에서 사료가치로 볼 때 단백질함량이 많고 스스로 질소를 고정하는 잡초 때문에 콩과목초를 중요하게 다룬다. 기후환경, 병충해 및 방목조건에서 잘 적응하는 목초를 만들어 내기 위해 육종연구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목초유전자원을 찾고 보존하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 이런 작업을 돕기 위해 분자생물학의 기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목초종자 시장성이 낮아 아직까지 기초연구들만 수행되는 중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나의 초지에 대한 연구는 목초생성에 대한 것들이다. 나에게 흥미있는 연구는 초지의 상태에 따라 가축 생산성을 비교하는 방목시험으로 이 시험을 하기 위해 4-5ha정도 면적의 방목지에 경운작업, 비료시비 및 목초파종 등의 작업을 거쳐 초지를 조성하고 시험 처리별로 목구(牧區)를 두기 위해 철조망을 쳐야 한다. 초지를 조성하고 철조망을 치는데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되며 목초가 푸르러지는 3월 중순 쯤 되면 방목이 시작된다.

초지조성과정도 간단하지 않지만 가축을 이용한 방목 시험도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다. 시험 중에 가축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수의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하지만 시험축이 죽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럴 때는 마음이 아프다. 시험 기간 중 매일 가축의 체중을 측정한다. 저울 있는 쪽으로 가축을 이동할 때 낱뿔 높은 철조망을 필적 뛰어 넘어 도망을 치게 되면 시험을 듣는 학생들에게 화를 내며 가축을 쫓아 방목지를 달라고 한다. 체중 측정시 가축을 계류장(繫留場)에 모으다가 저울로 이동시키는 것이 어렵다. 어떤 늙은 순순히 저울로 가는 반면 어떤 늙은 계속 피를 부리며 저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연구를 듣는 학생들에게 가축을 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타이르다가도 패시하게 이리저리 피하는 가축을 보면 화

가 나서 나도 모르게 때리게 된다. 가축과 사람 간에 서로 올바른 의사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반성한다.

그래도 방목상태 하에서 목초의 형태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머리를 풀 속에 묻고 목초를 더듬노라면 방목하는 소들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무슨지 우리들 주위에 모여들 때는 가슴속엔 친근감을 느낀다. 풀밭에서 조사를 하는 중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운 새 소리를 들을 때는 더없이 즐거우며 초지전공을 잘했다고 생각하곤 한다. 이렇게 4-5년 고생을 해서 기대했던 연구결과가 나오면 고생의 어려움이 즐거움 추억이 된다.

그러나 소 산업이 외국과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논리에 밀려 초지를 골프장 또는 감자밭 등으로 파헤쳐 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마다 초지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초지를 파헤쳐 버리면 목초지 위에서 한가로운 풀을 뜯는 마소의 정경을 제주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며 관광객들이 찾아 오지 않을 것이다. 목초는 어떤 작물 보다는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 오염물질 정화능력도 높다. 돼지 돈사에서 생산되는 액상구비는 오염문제로 파랑시용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그 살포허용량이 비 이모작시 ha당 19톤, 감자 25톤, 20년생 감귤 34톤에 비해 목초는 68톤을 이용하여 정화할 수 있다. IMF이전에는 축산식품 수요가 계속 늘었으나 축산물 공급은 부족하여 자급률이 계속 낮았다. 지금 IMF시대처럼 외국에서 수입이 어려울 때 중산간지대를 훌륭한 목초지로 만들어 이용하는 것이 자원 활용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척박한 중산간지대를 양돈농부 등 가축분을 이용하여 토양을 비옥케함으로 목초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결국 초식가축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 자신도 능력이 부족하고 동료연구자도 별로 없는 초지분야이지만 하나씩 문제를 풀다보면 제주를 푸른 풀바다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동물자원학과 교수)

경의 약화는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볼 때 상상 이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의지나 대응전략이 없다면, NPT 회담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충실하고, 현재의 한미동맹의 유지를 통하여 군사안보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무기의 보유는 지역안보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일본이 군국화하며, 중국도 우리에게 위협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때에 선택하여도 늦지 않

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은 없는 문제를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이유도 우리와 비슷하며, 핵무장이 가져올 제반 정치, 안보적 상황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일미동맹이 제공해 주는 미국의 핵우산을 인정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핵기술 축적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약소국이라는 현실 때문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의 선택폭은 매우 협소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다 맞게 될 어떠한 결과라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거나(중립하는 실현가능성이 없어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국 대신 다른 역내 세력과 동맹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미국의 리더십을 수용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김희환(한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병무청공고 제98-1호

1998년도 징병검사 실시 공고

1998년도 징병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대상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징병검사 대상자

- '79년 1월 1일부터 '79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19세 대학재학생 포함)
- '78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참고사항
 - 읍·면·동장이 징병검사 통지서와 함께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 전술서"와 "징병검사여비(우편대체증서)"를 보내드리며, 여비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가급적 징병검사일 전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는 징병검사통지서를 참고하시고,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전술서"의 부·모 등 가족과 충분히 협의 후 징병검사시 제출바랍니다.

2. 병역처분기준

○ 학력별로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되는 기준

신체등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학력							
대 학	현역				제 2 국 민역	병역면제	제검사대상
고 졸							
고 퇴							
중 졸	보충역						

*5·6급 대상자는 징병관, 군의관, 읍·면·동장과 병역의무자 가족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3. 학력과 신체 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보충역대상	•전통문화·순직군인 및 상이제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의 형제 또는 아들 중 1인 •1년이상 2년미만 수행자(징행유예자 제외)
제2국민역대상	•중학교퇴학자, 2년이상 수행자(징행유예자 제외) •고아, 귀화자, 외관상 성별이 명백한 혼혈아

4. 징병검사 연기 등 출원 안내

○징병검사 연기

- 질병, 선원,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일 전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출원없이 연기됨.

○산업기능요원 편입

- 징병검사결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28개월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지원, 경비 감시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지원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은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도 편입이 가능하며 산업체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제조생산 분야에 28개월간 근무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로써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시 보충역 복무 희망원서(서식은 징병검사장에 비치)에 산업기능요원 복무희망을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세 입영 희망

- 금년도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시 입영희망원을 출원하시면 군의 소요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 입영연기 및 입영원

- 징병검사를 받은 후 고교이상의 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한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전문대학:22세, 대학:24세, 대학원:26세)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출원이 학적보유자명부에 의거 졸업일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 대학 재학생으로 전역과 동시 복학을 위하여 학년말(12월에서 2월초) 또는 학기말(6월에서 8월초)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재학생 입영원서에 입영희망시기를 월별로 기재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당 지방병무(지)청장 또는 시·구·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다음해에 입영계획 범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5.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등의 처벌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된 사람 및 징병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6.유의 사항

- 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등 병역처분의 학력, 신체정도 등 법령상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컴퓨터에 의거 처분되는 것이며, 그 누구의 청탁이나 작용에 의하여 임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간혹 외관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간질, 결핵, 정신질환 등 수처심질환과 수행, 지학력 등 신분상 사유로 면제되거나 불합격된 사람이 마치 청탁이나 정실에 의하여 면제된 양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해받으시기 바라며, 만약 어떤 작용에 의하여 면제시킬 수 있는 양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를 즉시 아래 전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통지서가 발부된 후 같은 지방병무(지)청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이미 발부된 징병검사 통지서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른 지방병무(지)청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전입신고시 신고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통지서를 반납하고 다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검사일정(거주지 기준)		병무상당이나 병무부조리 신고 ☎	
제 주	제 주 시	9.25 - 10.17	서울 820-4221 부산 803-3920
	서귀포시	9. 7 - 9. 11	대구 252-8011 수원 253-7080
	북제주군	9.12 - 9.18	광주 223-3912 대전 253-4901
남제주군	남제주군	9.21 - 9.24	충청 54-7011 청주 273-3901
			전주 83-9222 제주 752-3910
			창원 66-3913 의정부 877-3912
			강릉 43-3910

병 무 청 장

사람들

■골수 기증자 문수용(95학번) 학우
자신이 도움받는 것처럼 남 도와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불편함을 무릅쓰며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고귀한 일이 있을까? 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름조차 모르는 한 빈혈환자에게 자신의 골수를 기증한 문수용(농업경제 3 휴학) 학우가 그 고귀한 선행을 베푼 주인공이다. 문수용 학우를 만나 얘기를 나눠보았다.

△ 골수기증 동기는?

96년 초 우리학교 한라터에서 있었던 장기기증운동 행사에 친구들과 함께 골수기증 의사를 밝히고 채혈한 적이 있다. 그때 일을 까맣히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 장기기증운동본부로부터 어떤 빈혈 환자와 나의 유전자 같다는 연락을 받고 골수를 기증하게 됐다.

△ 기증을 받는 상대는 누구이며 수술결과는?

서귀포시에 사는 16세 학생으로 재생불량성 빈혈증세를 앓고 있었다. 규정에 따라 공여자 및 수여자 모두의 신원이 보장돼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 수술 후 3주간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으면 완치판정을 받게 되는데 수술결

과가 좋다고 들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수기증 등에 대해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많은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골수를 기증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나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해 심했다. 그런데도 그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골수기증을 결심했고 부모님을 설득했다.

△ 이식수술 후유증은?

지난 9월 15일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전신마취를 하고 긴 주사기 바늘을 통해 골반부위의 골수채취 수술을 받았다. 전신마취 때문에 수술하는 동안 전혀 통증을 느낄 수 없었고 마취가 풀린 후에는 곧바로 걸어다닐 수 있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3박 4일간 입원을 있을 때도 외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 골수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반인들은 골수이식 수술과정 자체가 매우 어렵고 고통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내 경우에 비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으며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보였다. 골수기증 뿐만 아니라 장기기증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달라져 이러한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정말 사람 사는 일이 한지 앞을 내다볼 수 없듯 자신의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길 바란다.

김영규 기자

아라발언대

제대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대신문 기사와 대학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격려의 목소리라면 참여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투고방법

1. 대학원동 3층 제대신문 편집국
2. 통신이동 : 천리안(ID:CTSMS)
3. FAX 756-2204
4. 원고분량 : 원고지 2~3매 내외의외에도 우편제보 또는 전화(☎754-2278·9)제보도 가능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 바랍니다.

나부터 학교사랑 실천하자
배지달기·UI상품 애용 등

아직까지 UI관련 학용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학우들은 예전의 '제주대학교' 마크가 찍혀진, 얼마 남지 않은 원고지와 레포지터를 사용하거나 비싼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학생회관 매점에 팔고 있는 배지 달기 기회를 놓치고 있다. 새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는 그 배지는 과거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학우들이 그 배지를 사지는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그 관계자의 말이다.

우리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애교심을 갖도록 교과와 교복 등을 필수로 알아야 했다. 물론 무의식적으로나마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학교 학생들은 어떠한가. 나조차도 교복이 무엇인지, 교과는 있거나 한지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의외로 판매대 위에서 학내 구성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배지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제주대학교에

대한 무엇인가를 느꼈다. 단순한 UI상품이 아니라 '제주대학교'의 것으로서 말이다. 우선 홍보가 뛰어나도 해도 가장 중요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회는 본부와 함께 '학교사랑운동'을 벌이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렇지만 새로 나온 상품 등에 대해서 애용하지 않는다는 모습은 별로 본 적이 없다. 또한 학생들과 교직원, 교수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숭수상품에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도 보지 못했다.

제주대학교의 상품이 학의 사람들에게 기억날 만한 것이 되려면 우리 구성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본부와 학생회 등 어떤 조직에서 'OO운동'만을 펼치라는 말이 아니다. 제주대학교에 대해 뭔가 기억하고 간직할 만한 상품을 우리부터 애용하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학용품도 나온다고 들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사용하게 될 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이다.

고민수(법 3)

■방학중 봉사활동 체험기④ -우체국-

19시간의 봉사가 편지 애호가로 만들어

사회생활에 도움될 값진 경험

친구들과 자원봉사 할 장소를 찾는데,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가고 싶어 한 장소는 우체국이었다. 왜 모두들 우체국에 가고 싶어했을까? 커다란 가방에 편지들을 가득 담고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해주시던 아저씨... 이런 어린시절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싶어했을까?

첫날은 '발착계'에서 일을 했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솔직히 우체국 안에 들어간 첫 느낌은 어수선 그 자체였다. 수많은 우편물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우편물을 넣는 포대들을 던지는 소리, 우편물을 동별·시별로 분류하는 소리, 콘테이너 나르는 소리, 이거지거시, 외치는 소리, 아저씨들의 목소리! 이 일 처음이라 우리는 일 처리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고보니 봉사활동이라고 하면서 오려 아저씨들이 작업하시는데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다. 그러나 한 시간, 두 시간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 동별 위치를 외울 수 있게 되자 나는 전보다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우편물을 분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열심히 맡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봉사활동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조원들을 부르셨다. 이제부터는 3층에서 일하라는 말씀이었다. 기껏 이력이 붙으려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 조금은 속상했지만, 봉사활동 하러 왔으니 기쁘게 해주시고 할 수 있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기대하며 '특수계'라는 곳으로 갔다. 이름만 들어도 편지 어렵고 특수한 일을 하게 될 것 같았다. 잠시 후 우리에

게는 볼펜과 먹지, 그리고 기록할 종이 주어져서. 등기물의 번호와 배달할 지역 등을 기록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열심히 설명을 듣고 시작한 일인데도 실수를 저지르게 돼 일을 도와드리러다 오려려 폐만 끼친다는 걱정을 했다.

우체국 안의 수많은 편지들, 소포들은 나의 마음을 설레고 기쁘게 했다. 우편물을 받고 기뻐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저 많은 편지들 중에 나에게 오는 편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신기했다. 생각해보니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 준다는 보람과 즐거움 때문에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활일지라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다.

E-mail이 생겨서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사무실에서 간단히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요즘 우리는 마음이 점점 삭막해짐을 느낀다. 우리는 전자우편의 편리함을 얻는 대신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들고 오시기만을 문 앞에서 기다리는, 하루에 몇번씩 우체통을 들여다보는 기다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평소 전자우편의 편리함과 이점들을 인정하고, 그 이점들을 자주 이용하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우체국에서의 19시간은 나를 아주 감성적이고 문학적인 편지 애호가로 만들어 버린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우체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면서도 신기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이제부터 편지를 보낼 때, 봉투에 '아저씨, 고맙습니다' 간단한 문구라도 써 보내는 것이 어떨까? 편지를 배달하는 아저씨들의 입가에 머물 잔잔한 미소가 떠오른다.

한희숙(가정관리 2)

사진으로 본 풍경



"나는 탁구임원진일 뿐이다" 결국 거짓말은 꼬리가 밟혔다. 그리고 그 날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학우를 잃었다. (사진은 지난 27일 전국체전을 벌임로 학내에 진의, 총학생회장 연행에 가담한 한 경찰)

사진/글 고정식 기자

주인의 권리 누리는 만큼 의무 다해야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학생회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면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데 아침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이 있다. 바로 학생회관이다.

월요일 아침에 학생회관은 쓰레기 매립지를 방불케 한다. 휴지통마다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마치 그 주변까지 널브러져 있고, 옆에는 술병들이 즐비하다. 로비는 술냄새가 배어있고, 마저 치우지 않은 담배꽂이들이 쓰레기통이 드문드문 보인다. 특히 화장실은 도저히 들어가기 싫을 정도이다.

바닥 여기저기에 구토물 한 토사물들이 보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세면대마다 채워져 있다. 또 화장실 문이 부서져 있는 것도 가끔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이 월요일 아침이면 일단 한숨부터 내쉬고 일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래서 월요일은 오전이면 다 지나서야 어느 정도 청소가 끝난다. 물론

그렇게 어질러 놓은 학생들에게 '수고하십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해 말이다. 휴일에는 아저씨들이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휴지통을 감춰치우지 않아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학생들의 주인의식이 결여된 변명에 불과하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은 자신들이라고 수시로 주장하면서 막상 이런 일에는 자기 대신 손을 써줄 사람을 찾는 것이다. 정말로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방을 어질러 놓고 다른 사람이 치워주기만을 바랄 수 있겠는가. 진정한 학교의 주인이라면 그 공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그 곳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필요한 것이다.

얼마 없으면 추석연휴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을 것이고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은 얼마나 많은 한숨을 내쉬겠는가.

고경실(국어국문 1)

도서관, 학교의 얼굴이자 자존심
신간서적 확보·공공의식 재고해야

가을이다. 가을은 등하가전의 계절이라고 할 만큼 책 읽기에 더 없이 좋은 계절이다.

또한 가을은 2학기 중간고사가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에 대해 몇 가지 적고자 한다.

우리학교 도서관은 사실 대학 도서관으로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책 소장량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나마 있는 책도 옛날 것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진리야 변할 없는 것이어서 옛 것에도 있을 것은 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 특히 넓은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는 대학생에게 새로운 정보를 가득 담고 있는 신간 도서가 필요하다. 레포트 자료를 구하려고 서고를 뒤져봐도 그리 만족할 만큼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립대학의 재정이야 많지 않은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IMF 영향하의 요즘은 더욱 어려운 것이지만 학교의 자존심인 도서관을 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제주대학교가 발전하는 길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체인 우리 학생들도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 도서관 자리문제는 지난 학기 재대 신문에서도 실렸으니가 두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문제는 우리가 도서관을 너무 편하게, 다시 말해서 마음대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현관에는 재떨이 한 개 휴지통이 버젓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담배꽂이가 널려있고 1층 로비 검색용 컴퓨터를 위에는 먹고 버린 과자봉지, 음료수, 컵 등이 흩어져 있다. 청소하시는 분을 보기가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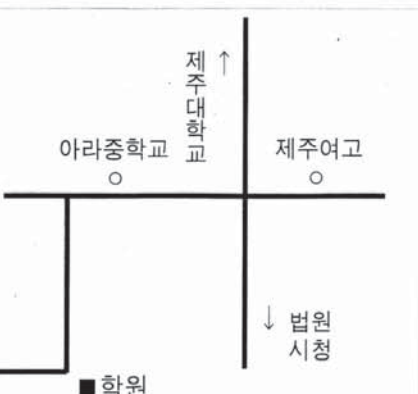
망할 정도로 우리의 도서관은 엉망일 것 같다.

자기가 편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 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몰래 찢어가는 사람들, 화장실에서 세수한 후 닦고 난 휴지를 그대로 세면기에 버려 배수관이 막히게 만드는 사람들, 밤이 깊도록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듯 1층 홀에서 깔깔대며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서관 이용을 떠나서 과연 내가 대학생의 신분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도서관은 학교의 얼굴이자 학생들의 자존심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를 포함한 모든 학우들은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한 환경속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최상구(의예 2)

운

전

한라자동차
운전전문학원

☎ 755-9900, 756-7755

제주시 아라 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제19회 영어말하기 대회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영문잡지사(The Islander)에서는 창간 28주년을 맞이하여 영어에 대한 관심과 영어 구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내 6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영어 중심의 제19회 영어말하기 대회(The 19th English Speech Contest)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다 음

1. 참가대상 : 도내 6개 대학(제주대, 제주교육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제주산업정보대, 탐라대)
2. 내용 : 생활영어 및 3분 주제발표
 - 1) 제1부-생활영어 : 일상생활에서 전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외국인과의 대화를 통해 대처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2) 제2부-주제발표 :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펴고, 대화능력 및 태도를 평가한다.
3. 지원방법 : 지원서 별첨
4. 지원서 배부 및 접수 :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영문잡지 편 집국(대학원동 3층, 전화 : 754-2281)
5. 접수 기간 : 9월28일 ~ 10월30일
6. 예비소집 및 예선 : 10월31일 토요일 (장소는 추후 결정)
7. 본선 : 1998년 11월10일 화요일, 공과대학 C동 세미나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영문잡지 편집국 전화 754-2281 또는 천리안 아이디 Dueday, 이메일 dueday@chollan.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영문잡지사(The Islander)

내년 상반기(4월초 예정) 시행 대비!

공인중개사

법정재정의무회 자격증

'98년 11월 22일 5,000명 선발 예정!

주택관리사

- ◆ 한국고시학원은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전문학원입니다.
- ◆ 이론실용+문제풀이+암기비법
- ◆ '97년도 공인중개사시험(제9회) 제주 합격자중 50% 배출
- ◆ 강의시간 : 오후 7:00~10:00(2개월 순환과정)
- ※대학재학생 30%할인(재학생증서요)

지금부터 대비하자!

99년 공무원채용 앞당긴다

(선발인원도 올해 이상으로:서울신문 98. 8. 7. 보도)

9급 및 경찰반

강좌
안내

■개강일 : 10월 1일(목)

■강의시간 : 오후 7:00~10:00 (2개월 순환과

경찰공무원 채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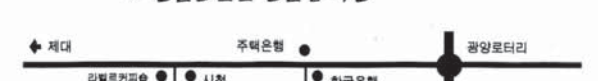
구분	인원	공고	필기시험
일반제3차	제주 28명		'98. 10. 18.
제4차	전국 900명	'98. 11. 6.	'98. 12. 6.
제5차	전국 716명	'99. 3. 2.	'99. 3. 28.

법률학·교육학·회계학

강좌
안내

■개강일 : 10월 1일(목)

■경찰소집반 경찰법 특강



한국고시학원 상명문의 ☎724-0522, 724-2441

『탐라문화』 원고모집

◆ 투고자격 :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및 특별연구원, 연구원이 아닌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 거쳐 게재.

◆ 주제 : 제주도 문화와 관련된 것을 원칙으로 함.

◆ 종류 : 연구논문(Article), 단보(Proceeding & Report), 서평(Book Review), 자료(Source), 번역문(Translation), 토론문(Discussion) 등

◆ 제출처 : 탐라문화연구소

◆ 제출요령

•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원본 원고와 디스켓을 함께 제출.
• 논문과 단보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은 문은 영문요약문, 영문논문은 국문요약문 첨부할 것.

◆ 원고마감 : 1998년 10월 31일

◆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나 내용상의 미비점과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의 탐라문화 원고 투고 규정과 일반적인 관행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함.

탐라문화연구소장

문 화 평 ■ 10대 아이들 음악이 나쁜 세 가지 이유

스타시스템에 의해 조작된 모방상품 '우리만 좋으면 된다' 식 문화불감증 등 위험수위

TV를 켜기가 무섭다. 채널권마저 10대들의 몫이다. 하루가 무섭게 등장하는 판박이 10대 댄스 가수들의 신상이나 노래는 물론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흥분하며 거리낌없이 모방을 해대는 그들에게 분명 10대 댄스가수들은 영웅이다.

굳이 교육적인 차원의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들의 스타시스템은 그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중음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한번쯤 되짚어 봐야 할 사회문제인 것이다.

필자는 90년대 이후, 정확히 얘기하자면 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한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10대 댄스가수들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그런 10대 댄스가수들에 광분하는 또래집단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이 간파하고 있는 몇가지 키워드를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 그들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부여받는 가수가 아니라 상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스타시스템이라는 공정에 의해 찍혀져 나온 상품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국내 음반시장은 약 85~90%를 10대들이 장악하고 있는 기형적 모습을 하고 있다. 적어도 국내 음반시장에 있어서 만큼은 그들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계층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음반기획의 포인트는 '과연 10대들의 취미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혹은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이란 어떤 음악인가'에 맞춰진다. 이는 음반사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크나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음악성이나 실험



◇10대들에게 맞춰진 대중음악 시스템은 음악성과 실험성의 상실, 문화불감증, 대중음악의 균형적 발전 저해 등을 초래하고 있다.(10대 그룹 UP, 한겨레 신문 1998년 2월24일자)

성은 이미 뒷전이다. 그런 음반기획자에 의해 가수가 된 그들 또한 음악성이나 실험성은 이미 뒷전이다. 그런 음반기획자를 대신해 '돈 벌어주는 기계'에 불과한 것이다. 10대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연예계에 대한 동경을 그들은 효과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이다.

둘째 그들의 음악, 춤, 의상들은 '개성'이라는 이름 아래 미화되고 있는 '또 다른 모방'일 뿐이다. 그들의 음악은 '서태지와 아이

들'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대중음악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서태지'라는 영웅에 대한 동경의 다른 표현이고, 실제로 요즘의 10대 댄스가수들 대부분은 '서태지'의 음악을 들으면서 가수에 대한 꿈을 키워왔고 그들이 뽑은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서태지'가 단연 압도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인터뷰

「일본영화제」 기획한 영화만세 대표 김영만씨

문화주체의식 확립돼야 개방후유증 적어



일본영화제가 제주시네마테크 '영화만세'·영화동아리 '네모나 세상' 공동주최로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학생회관 시청

각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영화제를 기획한 제주시네마테크 '영화만세' 대표 김영만씨를 만나 개최동기와 영화에 관해 물어보았다.

△「영화만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도내에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영화단체로서 시네마테크 전국연합에 속해 있다. 영화만세는 좋은 영화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영화를 상영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 문화태백이 적다는 점을 생각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임원 4명과 회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영화제」 개최 동기와 영화선정 기준은?

다른 지방에서는 이미 소규모 영화제를

통해 일본영화제가 많이 소개됐으나 제주도에 는 영화제를 할 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을 뿐더러 도민의 관심도 적어 거의 접할 기회가 없었다. 일본영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관심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 작품은 작품성 있는 국제영화제 수상작도 있지만 대부분 대중적이고 흥미로운 것을 택했다. 그리고 몇 개를 제외하면 연소자들도 볼 수 있는 부담없는 작품들이다.

△한국영화 발전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지금껏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에 남달랐기 때문에 한국영화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진 검열, 심의 제도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막아 작품의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한국영화'에 대한 대중들의 외면을 부채질 하고 있다. 우리영화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검열·심의제도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음악을 소비하는 10대들은 제3의 모방을 하고 있으며 '모방이 전 표절이건 우리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문화적 불감증을 낳고 있는 것이다. 비약한다면 어느 나라 문화든지 '좋으면 그만'이란 식의 위험한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일본 대중문화의 전면적인 개방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박 하나 제대로 터지면 팔자 고친다'라는 말이 나올만큼 한탕주의에 물든 10대 아이들과 부모님의 극성은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 나타난 10대 가수들의 표면적 성공이 낳은 또 하나의 병폐라고 할 수 있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가수의 문을 두드리는 많은 10대들이 쫓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허상일 뿐이다. 일확천금의 꿈과 인기, 명예 그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얻었을 때의 삶이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진정한 스타란 10대 가수들이 생각하는 그리 화려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인기란 스타를 스타하게 하지 못하는 필요악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인식해야 하는 일이 우선이다. 고도로 조직화되고 기업화된 스타시스템에 의해 조작된 그들의 음악은 국내 대중음악의 장르와 세대별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그런 스타시스템에 의해 찍혀져 나온 그들의 음악적 생명력 또한 불보듯 뻔한 일이다.

다 쓰면 폐기처분되는 10대 가수들의 모습을 보며 필자는 쓸쓸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21세기 대중문화의 자원화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국제 경쟁력을 갖춘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부단한 노력이 문화민간의 위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강창민(서귀포신문 전문기자)

아라시단 시단 시단

12월 30일 시를 쓰면서

1.

그대를 만난 1년 동안 101편의 영화를 보았다. 제목도, 내용도, 주인공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생각나는 영화가 없다. 사흘에 한 번 정도 영화를 볼 때마다 그대가 누군지를 쳐다보는 게 더 재미있었다. 한 시간 전에 본 101번째 영화를 보면서 나는 '그대의 코 옆 사마귀와 가늘고 긴 손가락을 열심히 훑쳐 보았다.

2.

가끔
아주 가끔,
그대와 나 사이의
맞잡은 손 사이로
행인 하나가
엑스트라처럼
슬취한 바람처럼
지나갈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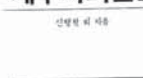
3.

12월 30일, 시를 쓰면서 원손 약재에 끼인 금반지를 내내 만지작 거린다. 101번째의 영화를 보면서 내내 만지작 거렸다.
진주연(국어교육 98년 졸)

새 책 소개

『제주사회론 2』

제주사회론2



「향토자료실 발전 계획에 따른 성과와 과제」



신형철(사회학과) 교수 외 10인이 공동저술한 『제주사회론 2』가 지난 9월 23일 한울 아카데미를 통해 발간됐다.

이 책은 지난 91년부터 현재까지 학내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엮은 것으로서 제주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고 미래를 모색·연구한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도내의 다른 학문 영역 연구자들, 그리고 다른 지역 사회학자들과의 폭넓은 교류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이 책은 사회학과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연구와 교육을 통해, 때로는 사회참여를 통해서 제주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리 학과를 거쳐간 많은 졸업생들을 가르치면서 대화하고 함께 작업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상숙(중앙도서관 사서)씨의 편저 『郷土資料室 發展 計劃에 따른 成果와 課題』가 지난 14일 부산민족문화사를 통해 발간됐다. 이 책은 △향토자료실 발전 계획에 따른 성과와 과제 △대학 도서관 향토자료실 발전 방안 △고문서·고서·향토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대한 지역도서관의 역할 △교내 간행물 전시회 사진 모음 △교내간행물 목차 △제주대학교 교내간행물 현황 △교내 발간자료원 △교내 간행물 전시 사진 준비 관계 등 교내간행물 및 제주관련 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엮여졌다.

양씨는 머리말을 통해 "대학의 간행물이 나 하찮은 유인물이라도 도서관에 모여지고 집대성될 때, 그 자체가 커다란 힘이며 역사의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



아라광장 이용안내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마당

아라광장은 아라인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게시판입니다. 어떤 내용인도 알리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아라광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용방법

◇대학동문 3층 제대신문 편집국 ◇통신이용: 천리안(ID: CTSMS) ◇FAX: 756-2204 ◇문의 754-2278~9

알림

제1회 참여자치 시민강좌

△강사:박노해 △재목:나눔과 연대 그리고 새로운 희망 △일시:10월9일 오후 6시 △장소:신제주 SK텔렉롬 제주지사 7층 강당 △주최: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문의:753-0844

'98년 관광홍보시 국민기자직시행 시행 안내

△대상:모두 및 접수:10월12일~10월17일 △접수처:제주지 연동 304-22 한정빌딩 △지적:만 18세 이상, 관광진흥법 제38조 제5항의 관광홍보사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출서류:응시원서 1부, 사진 2매, 응시수수료:2만원

제18회 전국 대학생 외국어 경시대

회 △접수기간:10월10일~10월23일 △제출서류:참가신청서 1부, 사진 2매

△접수처: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산 55-1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주최:교육부 △주관:부산외국어대학교

제22회 전국 대학생 외국어 경시대 △접수기간:10월10일까지 △제출서류:참가신청서 1부 △신청서 제출 및 문의:연세대학교 학생지원과(담당:김태중, 02-361-2119~21)

인문학연구 제4집 논문투고

△자격:재직교원 및 시간강사, 연구소 소속 연구원 △분량:참고문헌을 합해 2백자 원고지 1백매 내외 △마감:10월 30일

외국어교육관 무료 특별강좌

△Let's Sing Along:매주 월요일 오후1시~2시(장소:3층 Bubble Room)

△Korea Language Society:매주 월요일 오후 3시~4시(장소:3층 Bubble Room)

△Weekly Roundtable:매주 화요일 오후 1시~5시 사이 2시간(장소:3층 Bubble Room)

△Wednesday Cinema: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장소:2층 205H실)

△Office Hour(외국인과의 일대일 만남을 통해 정확한 영어능력 진단 및 취약점 보완):Christopher Smith: 월·화·목·금 1교시, David Crittendon:수 3교시·목 6교시, Jerome Show:화 7·8교시, Virginia Crittenden 화·목 1교시

CEBS-시연 및 신청곡을 받습니다

△신청방법:본관 3층 교육방송국 사무실로 직접, E-mail:cebs35_han-

mail.net, 전화(754-2284)로

△시연은 목요일 점심 12시~12시 25분 '캠퍼스 쪽지'에서 방송

△채택된 시연은 방송녹음대일 및 기념품을, 일주일에 1명은 문화상품권 증정.

결승1등 아동들 도읍시다

하나회(제주대 여조교 모임)에서는 매달 결연자 아동들 돕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따뜻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문의:754-3394, 오숙희)

국어교육과 학생회 주최 제1회 예쁜 이름 공모전

△대상:제주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공모 내용:순수 한글로 된 이름, 창작한 이름, 상호명, 알려지지 않은 꽃이나 나무 이름, 고유어 등 △응모기간:10월1일~10월9일 △시상내역:오름상·도서상품권 3매 1등 버금상·도서상품권 2매 1등 △문의:국어교육과 사무실 754-3210

교내 간행물 수집 협조 안내

△종류와 범위:각 동아리나 학생단체(제주대)에서 발간된 자료·각종 행사했던 팸플렛, 제주대 주최로 행사했던 자료, 대학 행사사진, 녹음, 비디오테이프 △연락처:중앙도서관 향토자료실 양상숙(754-2229) △자료가 발간되면 도서관으로 5부씩 보내거나 학생회관 3층 자료수집함을 이용할 것.

아라학술계 공모

△주최:시대들과 총학생회·학생처 △대상:각 학과 또는 동아리 △심사기준:주제의 독창성 및 진취성, 우리대학 학술문화 발전에 대한 고민정도, 학우들의 진로와 학과 발전에 대한 발전전망의 구상 정도 △시상내역: 최우수상·총상상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총상상 및 상금 25만원, 진취상·총상상 및 상금 10만원

제8회 모의토의 실시

△일시:10월10일 오전 10시~12시 △장소:외국어교육관 △대상:우리대학 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 3명씩 (선착순) △접수:9월28일~10월2일

△응시료:4천원 △기타:성적우수자에게는 외국어교육관 특별 강좌 수강권 수여

중어중문학과 특별강좌

△강사:이병현(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재목:중국 고전에 나타난

사공관 △일시:10월10일 오후 2시 △장소:인문대 세미나실

공연/전시

네모나 세상 JAPAN MOVIE 상영

△10월1일:「포커스」(오후3시), 「연두」(오후5시), 「철남Ⅱ」(오후7시)

△10월2일:「메모리즈」(오후3시), 「에반젤리온」(오후5시), 「원형공주」(오후7시)△10월3일:「월위댄스」(오후1시), 「담포포」(오후3시), 「하나비」(오후5시), 「러브레터」(오후7시) △장소:학생회관 시청각실 △입장료:무료

금요극장 『In & Out』

△일시:10월2일 오후4시 △장소:공대 C동 세미나실 △주연:Kevin Claim 제29회 전국 대학 미진

△주최:교육부 △주관:전북대학교 △일시:12월1일~12월8일 △장소:전북대 문화회관

「복제인간 실험...」 모의재판

△주최:법학과 학생회 △일시:10월2일 오후6시 △장소:법정대 강당

금요특강 '승무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강사:고경임(아시아나 승무원) △장소:학생회관 시청각실 △일시:10월9일 오후2시 △주관:학생처

보컬그룹 ACCENT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 콘서트'

△일시:10월3일 오후6시 △장소:문화회관 놀이마당 △문의:제주도 문화진흥원(754-5251)

음악학과 피아노 연구부 연구발표회

△일시:10월9일 오후 7시 △장소:문화회관 소극장 △문의:754-2790

취업

(주)홍국생명보험회사 제주지역 사

원모집 △대상:전문대 졸 이상 남녀 △기간:수시모집 △문의:721-5402(인사 담당 한동진)

(주)홍화개발 제주 현대 텔론

△홍화개발주식회사(회장 장상훈)는 제주시 노형동에 지상 17층, 지하 5층, 3백20실 규모의 「제주 현대 텔론」을 신축, 내년 2월에 완공 예정 △98년 11월경에 1백 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채용할 예정 △문의:743-2171~5

전국 초·중·고 피전 컴퓨터 관련 실기강사 모집

△주최:한국전산교육연구소 △자격:만20세이상~만30세미만, 전문대졸 이상,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글 워드 3급 이상) △근무기간:1년(98년 11월~2000년 2월 중) △응시원서: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접수처: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098호

주간 식단표

10월7일~10월10일

학생회관 식당(T.754-2052)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시간						
정식 (아침 저녁)	추 석 연 휴		미역된장국 멸치 볶음 잡채	북어국 고등어조림 미역줄기볶음	돈육우육 오징어볶음 무생채	유부두부된장국 통태조림 양배추된장무침
특정식 (점심)			볶음밥 미역된장국	카레라이스 북어국	잡채밥 무된장국	없음
특식 (점심)			성게미역국 멸치볶음 오이양파무침	쇠고기된장찌개 영태도볶음 미역줄기볶음	육개장 북어포볶음 무생채	없음

9월28일~10월2일

본관 식당(T.754-2398)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A식당 (3천원)	쇠고기육개장	조개살된장찌개	만두백반	조개살순두부	제육볶음	없음
B식당 (4천원)	해물된장찌개	사골우거지찌개	매운탕	불고기	콩치김치찌개	없음

■정치권 사정의 문제점과 전망

공정성 유지 · 조기 완결이 정치개혁의 단초

민생현안 외면 · 지역감정 조장으로 무관심과 불신 심화



◇현재의 정치권 사정에 대한 이해는 정치개혁과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한 지배권력의 공고화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정의 형평성과 사정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불만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9월18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야당파괴저지 1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동아일보 9월 19일자)

오늘의 현 상황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총체적 국가위기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위기의 극복을 위해 국민이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사회적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다. 그러나 '정치권 사정'에 의한 정치권의 냉각기류는 국회운영의 파행을 야기함으로써 시급한 민생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정치권 돌파구의 마련을 위한 도구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는 안타깝다 못해 한심한 지경이다. 지금의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타협과 양보, 관용이라는 정치적 제도화의

일면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전투구(泥田鬪狗)하는 정치권의 이러한 행태는 사회 전반에 만연된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 사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또 정치권 사정 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중인 정치권 사정은 크게 두 가지 시작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정치개혁의 측면이다. 정치개혁이 공론화될 때마다 항상 지적되어 온 것이 정경유착의 문제이다. 이번의 정치권 사정은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경유착은 정치발전의 저해하는 우리 정치의 뿌리 깊은 사회적 병폐 중의 하나였다. 지난 30년간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은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는 왜곡된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었다. 구조적 모순은 재계와 정치인의 관계를 밀착시켜 음습적 정치자금의 조성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의 1인 보스 중심의 비민주적 정당운영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당정치

에 대한 정당연합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재편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3당 구도를 유지할 경우, 여당은 의석을 과반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계나 학계의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주개혁 연합론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야당의 분열로 인한 4당구도로의 정당 재편도 예상된다.

그러나 사정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사정의 형평성과 사정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불만과 우려이다. 정치권의 사정이 진행되면서 '교두보 사정'이나 '물타기 사정'이나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정의 대상이 주로 특정 정당에 집중된 것을 보면 그러한 비판을 단순히 정치적 저항으로 폄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증거확보조차 못한 사안을 정치권이 먼저 언론에 터뜨리는 행위는 권파적 포퓰리즘이라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사정의 장기화로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것을 지역감과 연결하려는 일련의 움직임들이다. 편파사정 의혹이 정치적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지역감정 조장의 빌미로 이용될 경우 정치권 사정은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정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비정치적인 무리한 사법적 처리가 여론의 동요를 얻을 경우, 정부는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 나아가 정당성의 상실은 개혁정책의 추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에 정치논리가 개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사정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과 연계되어 총체적 사회불안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불안은 국회파행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극심한 경제난과 더불어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국회는 실업문제의 해결과 경제활성화 등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며 법안처리의 물리적 기간은 불과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지속적인 정치적 대결로 국회가 본연의 임무마저 망각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정기 국회의회의 물리적 제약과 여론의 압력에 의하여 임시국회만 의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조

무론 유설

베를린을 위한 수고와 인내



김철민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머지 않아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너무 막연하고 절박한 때입니다. 보수가 작아도 아니야, 없더라도 일지라도 있으면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 이제서야 우리 사회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극복임을 깨닫고 있는 젊은이들, 이런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은 우리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정정하기 위하여 아니라 발전적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런 현실이 있게 된 근본적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일지 모르나 저는 그 원인이, 대부분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수고로 자란 열매를 취하기에 급급했음을, 다른 이를 위한 씨앗 심기에 게으르고 인색했음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있을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혹여 자신이 그러지 않았던가 되새겨 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이 씨앗 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씨앗 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고 스스로 씨앗 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씨앗은 생명과 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 스스로의 희생이 있어야만 좋은 열매와 새로운 씨앗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씨앗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비밀은 자신이 가진 것을 온전히 주는 데에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가꾼 이의 수고와 인내가 그렇고, 씨앗의 희생과 베풀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밝은 현실을 딛고 눈은 멀리 소망의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불안한 미래만 걱정하고 최선의 오늘을 만드는 꾸준한 행함이 없다면, 미래의 우리 자신 역시 다른 이의 열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한 부모님과 다른 이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밑거름에 감사하며 세찬 바람을 이겨내 더욱 더 좋은 열매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정분화·세계화·정보화의 무한 경쟁시대에 우뚝 설 수 있는 실력있는 참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 주는 사람, 자신이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만드는 사람,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씨앗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때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을 온전히 베풀고 나눌 때 수확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눈 앞의 대가가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참된 대가를 위해 우리 각자가 지금 가진 작은 것부터 서로 나누고, 훗날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풀 열매와 씨앗을 주고와 인내로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 감사하며 최선을 경주합시다. 오늘의 수고와 인내가 값진 열매의 내일을 잉태한다는 믿음으로.

〈컴퓨터교육과 전임강사〉

만간 국회는 정상화 될 것이라 기대된다.

정치권의 사정이 국민의 공감을 얻어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 경제개혁의 선결요건으로 지적되는 정치개혁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과 방향이 투명하고 뚜렷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정치적 보복이나 정략적 차원의 정책제거로 비쳐져서는 안될 것이

다. 따라서 사정의 형평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정의 대상을 여야를 망라한 모든 비리 혐의자들에게 집중시켜야 하며, 국회공정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정을 조기에 완결해야 할 것이다.

김관수(건국대 한국문제연구원)

시사

국민소환제

최근 한 시민단체가 정치인들이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여야간의 당파적 싸움에 골몰할 뿐 제 기능을 못 하는 국회의원 283명에 대해 순회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이 283명 전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민소환제 입법과 정치개혁추진 YMCA 운동본부'도 지난 24일 발족과 전국적으로 소환제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자신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직접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소환제에도는 몇가지 제한장치를 두는 것이 보통인데 우선 자신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다. 아무리 어떤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태가 분노를 자아낼 정도로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지

않았다면 소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인 소환의 대상으로 삼지 그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정당이나 정부를 소환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일시에 여러 국회의원을 상대로 여러 지역의 주민이 연대해서 퇴출운동에 나서는 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소환제는 스위스의 몇개 주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제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지난 52년 부산지정자치동 때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연장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피하는데 국회가 반대하자 대통령이 자신이 국민을 선출해 국민소환운동을 벌여 악용한 전례가 있다. 이처럼 국민소환제는 정적이나 경쟁 정당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전제적으로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국민소환제 입법청원운동은 계보, 지역, 패권 정치로 인해 처음부터 '불량국회의원'을 양산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이들의 업무 수행을 감시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소환 자체에 목적이 있다가 보다는 현역 의원에 대해 좀더 강력히 경고하고 주의를 주자는 예방적 의의가 크기 때문이다.

송경은 기자

제주대학교 출판부 간행도서

■한국사회의 신 중간계급



김석준 지음
306쪽
값 1만원

우리 사회의 대전환의 하나라 할 수 있는 1987년의 민주화 대투쟁이라는 시기에 첨예한 논쟁거리인 우리 사회의 계급구조, 그 중에서 신중간층 또는 신중간계급의 성격에 대한 것이었다. 이 책은 1989년도에 실시한 표본조사의 결과를 주된 자료로 탐구한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은 초고로 해서 수정·보완된 것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신중간계급의 성격을 당시 사회상황 속에서 그려 낼 수 있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방인의 세계



김경화 지음
273쪽
값 7천원

문학이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한 것이라면 제주사람들이 창조한 문학에는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제주사람 개개인이 창조한 작품은 개성과 독자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 작품들에는 제주사람이 공유하는 사상과 정서, 그리고 언어는 공통점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자는 나름대로 제주출신 문인들의 작품 속에서 추출되는 의식과 정서를 가법해 살펴보고 있다.

■전략적 응용과 소비자 행동론



황승철 지음
666쪽
값 1만2천원

지금의 소비자 주권 경제 시스템내에서의 제도와 응용 선택의 중요한 평가기준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made in)"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느냐(made for)"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결국 마케팅 활동의 초석이면서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의 기제는 "소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라는 소비자행동의 의식, 생각 그리고 행동을 분석해야 한다. 이 책은 소비자 행동과 관련한 지식과 이론들을 다루고 있다.

■조직행위론



김병국·김희술 공저
370쪽
값 1만4천원

조직은 여러 개인들과 집단의 집합체이고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인적요소와 물적요소로 구성되어 조직 내·외적인 환경과 부단히 상호작용하고 있는 조직에서의 핵심적 실체인 인적자원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대학 학부 수준에 맞춰 조직행위론의 기초개념을 강조하는 입문서이면서 세계화 및 경제경영 추세에 따라 국제조직행위의 분야도 강조하고 있다.

■영문학의 원류를 찾아서



양경수 지음
372쪽
값 1만원

문학을 다양한 문화활동의 영역들 중 하나를 볼 때, 한 나라 문학의 원류를 찾는 일은 그 나라 문화의 기본적 특성을 밝히는 일이 된다. 특히 한 나라 문학의 원천적인 요소를 규명하기 위하여 생명관, 세계관, 전생관, 문명관 같은 삶의 해석의 관점과 진보적인 국민성에 대한 다각적 고찰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다.

■러시아혁명의 해석



한기영 편저
276쪽
값 1만원

1917년~1921년 사이 러시아에서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의 와해는 아무리 세밀하게 연구를 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역사의 수수께끼에 속한다. 볼셰비스트에 의해 혁명이 배반당하고, 짓밟히고, 서쪽으로 가야 할 것이 동쪽으로 갔다고 말하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볼셰비즘을 역사적 필연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책은 이러한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의 자 8인의 러시아 혁명에 대한 해석이다.

■장애인고용 실태 진단

장애인 고용 기준 안 지켜 실직 위험에 노출...기업의 의식전환 필요

요사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실업으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이 직장을 잃으면서 주부가 생활전선으로 나서고,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던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농사라도 짓기 위하여 고향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나마 돌아갈 고향이나 부처먹을 땅이라도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이도저도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형편이다. 이렇듯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며, 가정의 화목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삶의 보람이나 희망을 가질 수 없을 터이다. 이러한 이치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두고, 3백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중 100분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도 장애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기관조차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통계에 의하면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곳

은 41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단 두 곳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입법부, 사법부, 시·도, 정부 7부처가 관조 마친가진 형편이다. 민간기업도 이보다 더 낮지는 않다. 사실 기준고용률 2%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여 생산성도 높이고, 부담금의 부담도 줄여야 할 법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 기 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1996년도에 기업들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올해 정경련은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법의 관련조항을 폐지하여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였다가 관련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이를 철회한 적이 있다. 장애인고용에 관한 기업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가 6곳 정도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들 사업체 대부분이 의무고용인원에 훨씬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건설업, 서비스업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장애인의 취업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쉽 지 않다고 한다. 이미 취업한 이들도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제일 먼저 실직의 위험에 직면해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장애인들이 특별한 혜택을 바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는 것이다. 장애인의 실직률은 비장애인의 그것에 비하여 몇배를 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장애인의 고용과 실직문제에 대하여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오승진(변호사)

■도내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대부분 건강한 사람 위주로 설치 편의시설 확충·제도화 시급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6천7백28명으로 지체장애인이 4천6백43명, 시각장애인이 4백39명, 청각·언어장애인이 5백68명, 정신지체장애인이 1천7백8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장애는 특정한에만 오는 거라 생각하는 등 구조적으로나 인식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제주지부가 지난 5월 9일 한국통신 제주본부 3층 강당에서 개최한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를 위한 '98장애인 실태보고' 세미나에서 발표된 도내 공공건축물(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병원, 각종 단체, 대형매점, 레저기관 등 55군데)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화장실 25%, 장애인용 공중전화 5%, 출입구 문손잡이 편리성 95%, 장애인전용주차장 44%, 계단양옆 안전손잡이 5%로 출입구(문손잡이 편리성)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공시설물들이 건강한 사람 중심으로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지 않은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시설주나 건물주들이 비용 문제로 기피, 법적 강제성이 없는 점 등 몇가지를 꼽고 있다.

성귀남(국어국문 1) 학우는 "일반 건물은 제쳐 두고라도 공공건물조차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사회복지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에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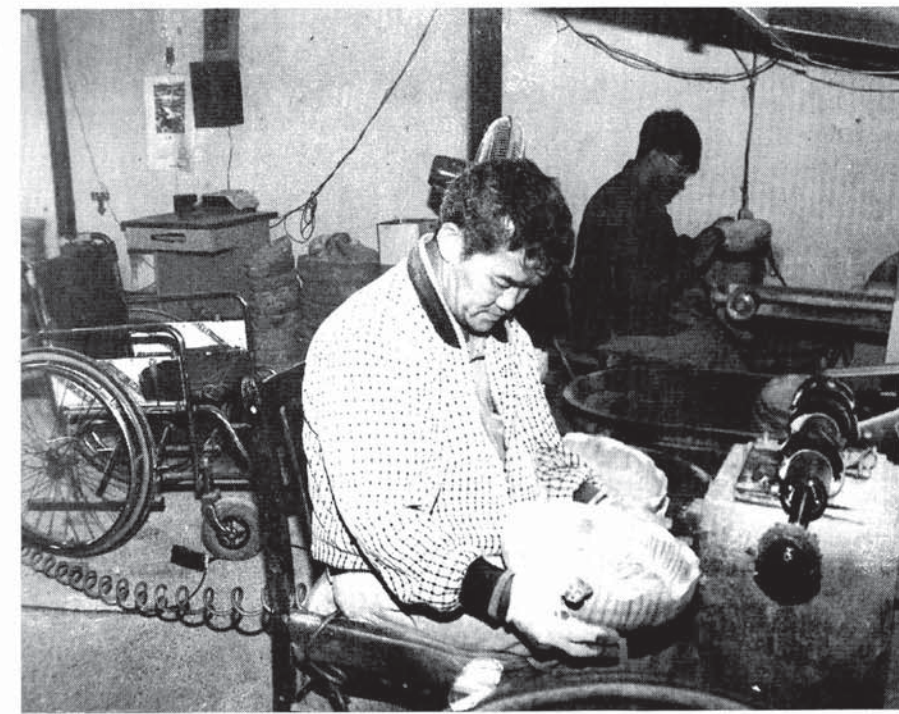
장애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각종 교통사고,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으로 선천성 장애보다 후천성 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도내 장애인 상당수가 출생 후 질병·사고 등에 의한 후천성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최소한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김숙희 기자

■현장취재 - 장애인근로센터를 다녀와서

"2% 의무고용 비율만이라도 지켜줘야 ..."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장애인들은 제일 먼저 실직의 위험에 처해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목공예공장에서 공예품을 다듬는 장애인들)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취재 중 전해진 정신지체인 열여덟살 완정이는 내내 기자의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대학 입구 5·16도로에서 남쪽으로 200m 쯤 가면 제주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있다. 이곳엔 제주재활의원과 사회복지법인 부설 준강장애인근로센터, 장애인 근로센터 기숙사가 함께 있다.

장애인근로센터에는 50여명의 장애인들이 일

하고 있다. 도내 등록 장애인이 6천7백28명인 것을 감안할 때 이곳에 고용된 50명이라는 수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아침 9시, 장애인 근로센터 행정실에서 간단한 주의를 듣고 세탁물 공장에 들어섰다.

그 곳에서는 15명이 도내 각 호텔에서 들어온 세탁물을 세탁, 건조, 다림질, 개기 등 네 단계로 나누어 일을 하고 있다. 사람 키를 훨씬 넘는

길이의 시트를 다림질 하는데, 후덥지근한 스팀 옆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난다.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말을 건넸다. "만만한 일이 아니지? 이곳에 있는 애들은 어찌나 착한지 처음 배워 줄때만 신경쓰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잘해. 보통 사람들보다 나야!" 정신지체장애자인 은향이란 친구는 그런 아주머니의 말을 증명해 보이듯 기자의 셔츠를 손질 하나하나를 바로잡아 주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목공예공장 사포실. 모양이 완성된 공예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곳인데 6명의 남자 장애인들이 다섯평 남짓한 공간에서 손을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나무가루가 자욱한 가운데 자리를 청해 앉고 함께 사포질을 했다.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면 미끄러지기 십상이었다. 옆에서 일하는 근로자 한 분은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장갑을 얹어다 줬다. 그들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러나 이곳도 IMF의 파장이 있었다. 피혁공장과 목공예부 일부는 수요가 없어 공장가동이 멈춰있고 목공예 공장과 세탁공장마저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 목공예 공장의 한 근로자는 "예전에는 요즘의 1.5배 이상은 더 만들었는데, IMF 이후 물량이 많이 줄었다"면서 "물량이 많아 우리같은 장애인들도 많이 일할 수 있을텐데"라며 쓴 웃음을 지었다. 많은 부서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두 곳을만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김남근 주임은 "안타깝게도 이곳은 적자운영입니다. 어떤 근로자들은 법적 최저임금보다 훨씬 밑도는 임금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근로자는 치료에 목적이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의 장애인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가득처럼 지낸다. 사람들과 접촉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주임은 일반 기업에 이런 적자를 감수한다는 것은 무리겠지만, 도내의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따른 2%의 의무 고용 비율만

이라도 지켜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분명히 그들은 신체적으로는 일반인들과 다르다. 하지만 그것이 일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들도 분명히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일반인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발휘한다. 일반인이 갖는 편견이 그들을 더욱 외곽으로 모는 것은 아닌지.....

일반인들도 힘들다는 어려운 시기에 외면받을 장애인들을 생각하니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한민희 기자

인터뷰 ■사회복지법인 준강 이사장 이동한씨

장애인에 대한 시선 바뀌어야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다." 지체장애인이자 장애인 근로센터 사회복지인 준강의 이사장 이동한씨(사진)의 말이다.

그를 만나 장애인 근로센터의 설립목적, 장애인 고용 문제점, 일반인들에게 바라는 점 등을 들어 봤다.

△선터설립 역사와 취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1987년 11월 24일에 설립됐다. 장애인들의 자력경쟁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약 10개의 공장에서 10명씩만을 교육시켜도

100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이 도내 각 지역에 설립된다면 장애인 1000명의 능력 창출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설립당시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의 이념적인 의지 외에 외부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지금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이 장애인들의 불운적인 인적 자원을 가용자원으로 바꾸는데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운영상 어려운 점은?

생산한만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 IMF영향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장애인 만든 상품에 품질이나 가격이 낮은 것이라는 등의 잘못된 인식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근로센터는 전국 사회복지 기관으로서의 최초로 2002년 월드컵 지정업체로 지정되는 등 그런 편견을 불식시킬 만큼 기술적·품질적인 면에서 앞서고 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더욱 만족이란 있을 수 없

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한 무조건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들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마음이 있다면 사회복지지는 어렵지않게 구현되리라 본다.

△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한 생각은?

경영자의 경영철학과 관련된 것이라고 본다. 경영자가 능률적인 편만을 중시한다면 장애인 고용은 불가능할 것이다. 모든 것을 떠나 인간적인 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사회복지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객관화 시켜 설명하기가 수월치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인 것이 바탕이 된 상태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모두가 어려운 때라는 걸 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땀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전에 정신적인 빈곤이 없어진다면 땀이 없어도 배고픔을 모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러한 사회풍조가 조성된다면 장애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민희 기자

中國語

취업대비 중국어 특별강좌

IMF 위기 탈출!

구조조정, 실업대란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지금 12억 인구를 가진 대국, 중국이 물러오고 있습니다. 대 중국 무역은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력이며 충분한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도에 중국 관광 관련 종사자나 통역가이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중국관련 창업 실적도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대 중국 무역업, 중국어 통역가이드 중국관련 창업이라는 무궁무진한 사업속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1년을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강의시간 : 오전 7시-9시 정원 20명
오후 4시-6시 정원 20명
오후 6시-8시 정원 20명
●강의과목 : 중국어 회화, 문법, 중국의 생활문화 등

*본 강좌는 중국어 비전공 학생에 한합니다. 중국어학과 관련자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기타 선택반, 오진반이 있습니다.

BEIJING CHINESE LANGUAGE INSTITUTE
북경중국학원

제주시 도남동 914-2 Tel. 722-8217
http://www.shinbiro.com/~bestitem/



상담전화
722-8217

중국유학상담 환영

정서함양권장도서 100권 소개

- 이기영, 고향
- 염상섭, 삼대
- 심훈, 상록수
- 이광수, 무정
- 조정래, 태백산맥
- 박경리, 토지
- 황석영, 장길산
- 최인훈, 광장
- 황순원, 카인의 후예
-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두보시선(杜甫詩選)
- 사서삼경(四書三經)
- 노선, 아류정전(阿Q 正傳)
- 나관중,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 불교경전
- 이백시선(李白詩選)
- 명심보감(明心寶鑑)
- 채근담(菜根譚)
- 호세르, 일리아드, 오딧세이
- 오비디우스, 변신
- 소포클레스, 오이디프스왕의
- 단테, 신곡
-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 플라톤, 공화국
- 성서
- 보카치오, 데카메론
- 세익스피어, 4대비극(햄릿, 맥베스, 리어왕, 오셀로)
- 밀턴, 실락원
- 오스틴, 오만과 편견
-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 디킨즈, 외딴한 유산
- 하디, 데스
- 조지, 젊은 예술가의 초상
- 로렌스, 사랑하는 여인들
- W. 서머셋 몸, 인간의 굴레
- 그레엄 그린, 사건의 핵심
- 호손, 주홍글씨
- 제임스, 여인의 초상
- 포크너, 음향과 분노
- 델릴, 백경
- 해밍웨이, 무기여 잘 있거라
- 앨리엇, 황무지
- 데이비드 소로, 월든
- 몽테뉴, 수상록
- 루소, 고백록
-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마르케스, 백년 동안의 고독
- 토마스 만, 마의 산
- 헤세, 수레바퀴 아래서
- 릴케, 말테의 수기
- 하이네, 노래의 책
- 보들레르, 악의꽃
- 몰랑, 메혹된 영혼
- 앙드레 지드, 좁은 문
- 카프카, 이방인
-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 카프카, 성
- 쎈 맥취베리,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스탈달, 적과 흑
- 톨스토이, 안나 카레리나
- 투르게네프, 아버지과 아들
- 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 괴테, 파우스트
- 아르스트, 구도, 말
-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 A. J. 크로닌, 젊은 날의 고뇌와 사랑
- 발자크, 잃어버린 환상
- 니체, 짜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 타고르, 키탄갈리
-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
- 마르케스, 자본론
- 데카르트, 성찰
- 비트겐슈타인, 확실성에 관하여
- 밀, 자유론
- D. J. 슈윙클, 음비의 사고
- 우나무노, 생의 비극적 감정
- 요나스, 책임의 원리
- 프로이트, 꿈의 해석
- 미셸 푸르티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110가지 개념
- 윌 듀란트, 철학 이야기
- 롤랑 바르트, 이미지와 글쓰기
- 페르 V. O. 지바, 문예미학
-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 마빈 해리스, 문화의 수수께끼
- 에른스트 블로흐, 희망의 원리
- 마가렛 미드, 남성과 여성
- 토퍼, 제3의 물결, 미래학이란 무엇인가.
- 칼 융, 현대의 신화
- 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격돌
- 아놀드 토인비, 역사의 연구
- 라인홀트 니버,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인간
- 스티븐 코비, 소중한 것을 먼저하라
- 조동일, 우리학문의 길
- 김용옥, 노자철학 이것이다
- 이범우, 신사고이론
- 합성현, 뜻으로 본 한국역사
- 유필화,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 박영규,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 이영희,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신한국인
- 서정오, 우리가 정말 읽어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GEMSTAR 주식회사

제주지사

아바이 학생 모집

—야간생도 가능—

업무: 안내 및 홍보
기본급 50만원 보장 + 장려금 지급
※수시 모집
위치: 동광양 변전소
맞은 편 대도로변

Tel 759-0503(4)

Fax 759-0504